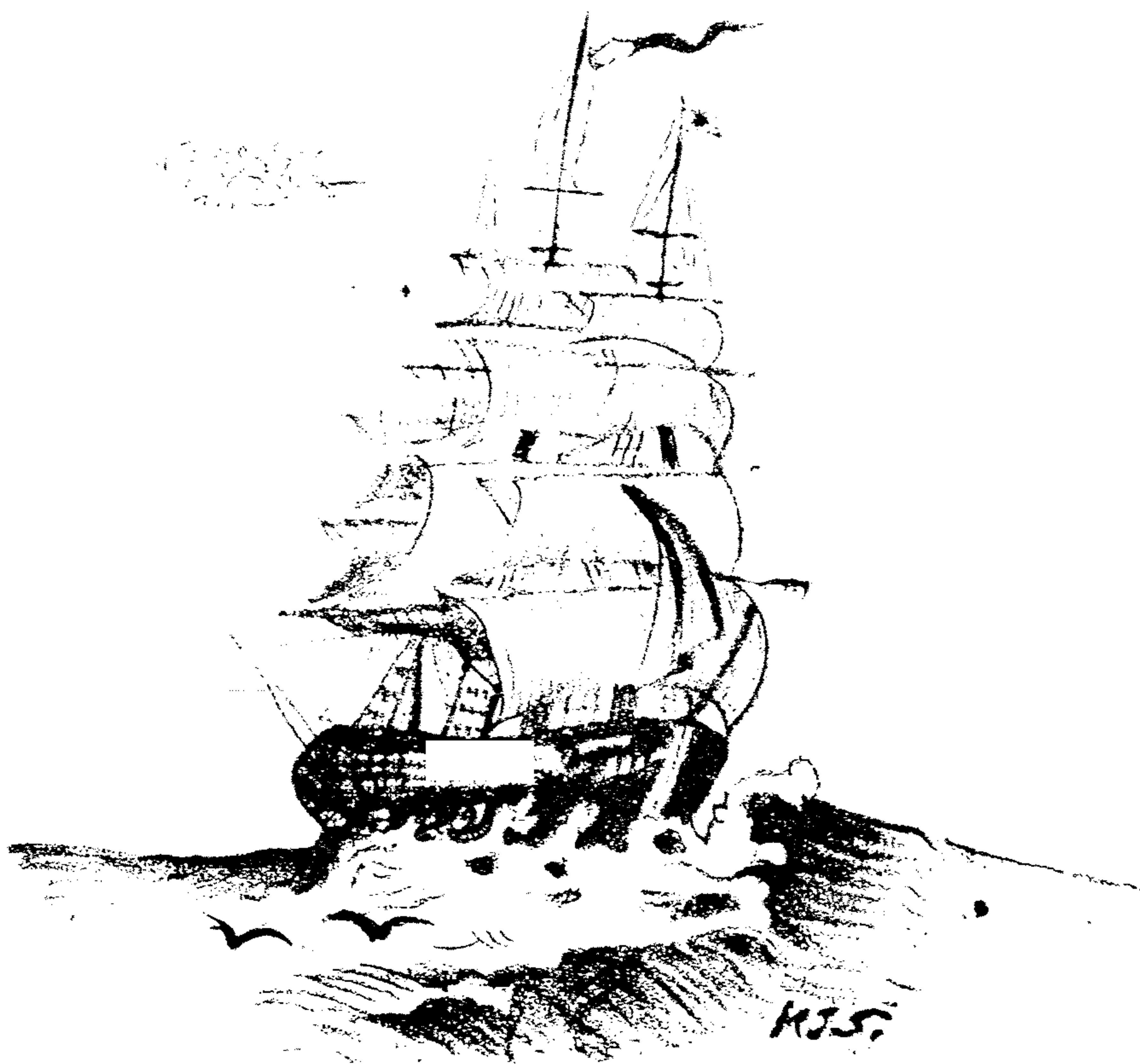


連記界

第六號



社團法人 大韓速記協會

目 次

卷 頭 辭.....會長 崔 致 煥..... 2

〈資 料〉

速記職公務員의 士氣昂揚을
위한 處遇改善과 技術向上方案國會速記擔當官室.....3

速記能力者.....金 永 善..... 6

記錄古今.....崔 錫 模..... 8

協會와 나崔 秉 秀.....10

● 새로운 可能性을 向한 空想.....徐 正 南.....12

速記를 해야지鄭 尙 美.....15

□ 合格記 : 토정비결이 좋더니.....安 喜 榮.....17

速記士와 바둑.....金 東 遠.....19

隨 | 강포수와 복실이徐 秉 運.....21

< 福 >金 允 洙.....23

筆 | 幸 福河 良 培.....24

< 詩 > 無 題.....柳 智 永.....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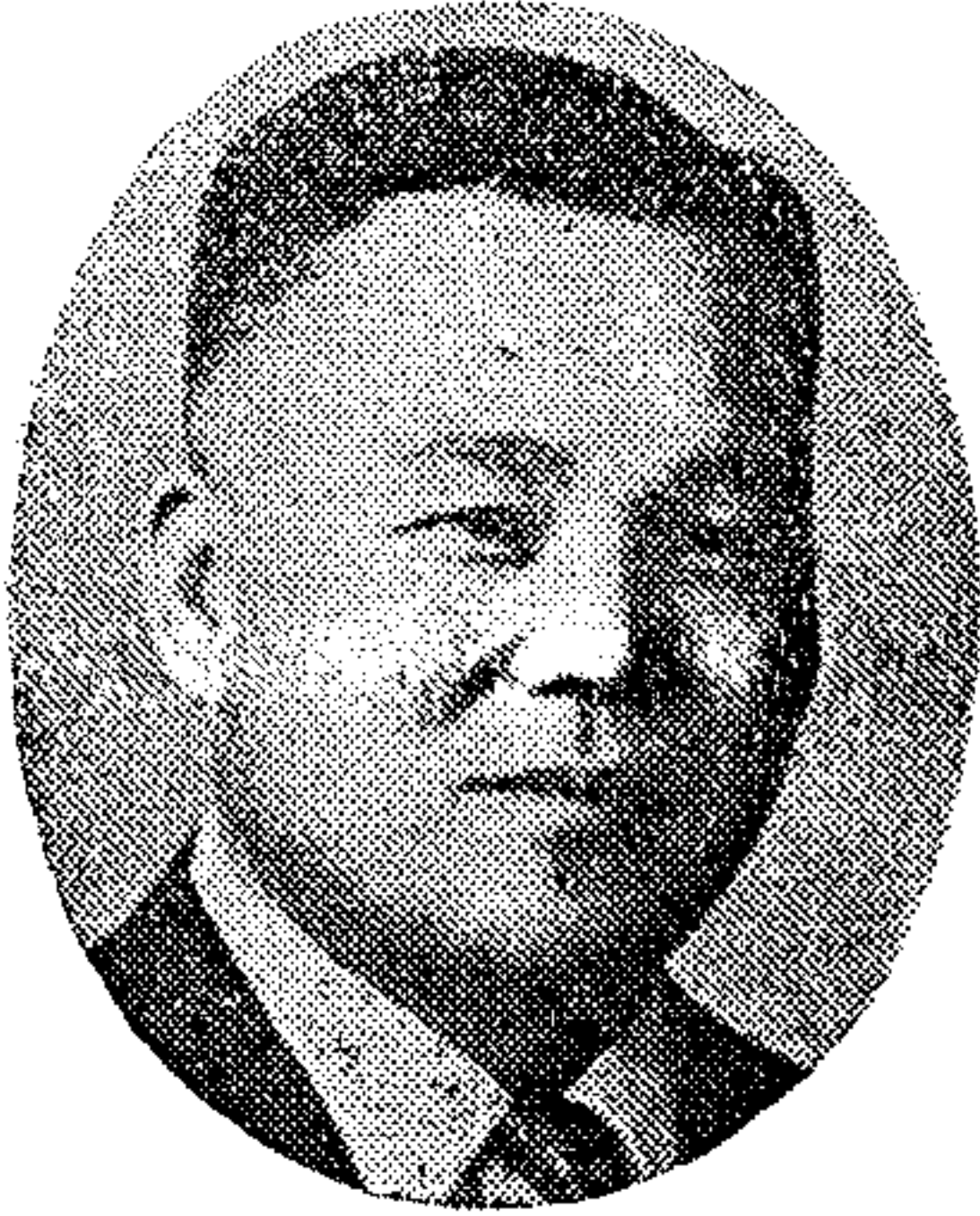
< 點景 > 第1回 體育大會.....楊 澈 在.....27

< 創作 > 成 長.....金 致 元.....30

< 定 款33

速記界와 「速記界」

會長 崔 致 煥



지난해 봄에 창간을 보았던 「速記界」가 다시 한번 봄을 지나 첫여름의 문턱에 들어섰다. 그러나 계절만 지내보낸 것은 아니다. 이번으로 여섯번째 나오는 「速記界」를 통해 속기인들은 서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잘하고 잘못된 일을 숨김없이 털어놓으면서 우리의 업적을 확인해 보곤 하였다.

근년에 들어서서 속기인들의 활동은 가히 速記中興이라 부르기엔 주저하지 않아도 좋을 정도이지만 이와 함께 「速記界」도 횡수를 거듭하면서 名實共히 속기계 그 자체를 보여주는 거울이 되었고 그 내용의 實을 더해 나가고 있다. 「速記界」를 보아서 우리는 우리의 行跡이 속기계의 歷史로 남게 됨을 실감할 수 있다. 앞장서서 일을 직접 맡은분이건 뒤에서 밀어주는 분들이건 이에는 마찬가지로 진지해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떨어가는 國力과 國民的인 意慾이 우리를 이렇게 밀어주는 힘도 크려니와 우리 또한 이에 보조를 같이 하면서 이제 그 隊列의 어디쯤에 서 있는가도 확인해 볼만한 때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증거가 「速記界」에 담겨있다. 그러나 현실의 한계도 많이 느낄 수 있었고 겸손한 反省이나 自責도 잊지 않았다. 사실 아무리 수고가 많다하더라도 自讚은 悲觀과 마찬가지로 禁物일 것이다 이웃의 격려를 고맙게 여길지언정 지나친 自負心에 도취하거나 盲目的인 증거도 삼가야 할 줄 안다. 그것은 자칫하면 허다한 難關을 外面케 되기 쉬운 까닭이다. 우리는 부단한 反省을 앞세우고 스스로를 향한 불음을 그치지 말아야겠다. 속기인구의 低邊擴大는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의 展望은 어떠한가? 그동안 속기의 寄與度는 얼마나 높여졌는가? 自問해 볼 일이다.

이 「速記界」를 통하여 問題意識이 高揚되고 精進하는 속기인들의 像이 부각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國會議員)

速記職公務員의 士氣昂揚을 위한

處遇改善과 技術向上 方案

國會速記擔當官室

註：이 原稿는 지난 2月 22日 國會事務總長 指示에 依據 國會速記士들의 士氣昂揚策에 對하여 國會速記擔當官室에서 建議된 內容을 轉載한 것임.

1. 目 的

現在 國內速記士의 數는 極少數이며 速記는 오랜 期間의 修鍊이 必要한 高度의 技術이어서 그 習得이 어렵고 執務時에는 分秒를 다투어 記錄해야 하는 甚한 神經消耗를 要하며 現 編制下에서는 昇進의 길조차 漠然하고 他機關에 比하여 處遇面에서 優待하지 못하고 將來에 대한 希望이 보이지 않아 士氣의 低下를 招來하므로 이들에게 보다 나은 處遇를 해 주고 昇進의 機會를 賦與함으로써 職務에 대한 愛着 責任感과 士氣를 昂揚시키고 技術向上을 圖謀함으로써 業務能率의 向上을 期하고 正確하며 迅速한 會議錄을 作成케 하는데 있음.

2. 方 針

(가) 現在 均一的으로 均等支給되고 있는 速記手當을 引上함과 아울러 職級別로 差等支給한다.

(나) 事務官으로 補하는 速記監督官制(6名)를 新設한다.

(다) 昇進時 實技試驗을 實施한다.

3. 問題와 關聯된 事項

가] 手當引上 및 差等支給에 關하여

- ① 速記術의 習得은 꾸준하고 고된 修鍊이 1~2年間 所要되며 處遇가 나쁘고 將來에 대한 希望이 없어 習學 志望者가 적다.
- ② 國會에서의 發言內容은 多樣하여 古文章 特殊專門用語 外來語 方言 不分明한 發音등이 많아 國會速記士의 能力은 高度로 熟練되어야 한다.
- ③ 速記職은 特殊技術을 要하기때문에 國會內 他職과의 相互交流(轉補)는 勿論 速記需要處의 貧困으로 他機關에의 轉出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循環이 低調하다.
- ④ 恒常 職務가 速記業務에만 局限되어 單調로움과 倦怠感을 갖는다.
- ⑤ 長期勤續者와 新規職員間에는 技術의 熟練度에 있어서 顯隔한 差異가 있어 比重이 다름에도 均一的으로 技術手當을 支給하고 있어 長期勤續者의 士氣를 低下시킨다.
- ⑥ 他機關의 技術手當은 級類別로 差等支給되고 있다.

⑦ 外國에서는 速記職이 一般職보다 優待되고 있는 바 日本 및 美國의 速記職과 一般職의 給料對比는 別表 1과 같다.

나】速記監督官制(3乙 6名)新設에 關하여

- ① 速記士의 能力은 高度로 熟練되어야 하므로 習學後에도 계속 技術研磨가 必要하며 休會中 隨時 技術向上을 위한 自體教育을 實施해야 한다.
- ② 速記術은 年齡과 密接한 關係가 있어 高齡者일수록 速度와 聽覺등 能力面에서 젊은 層에 뒤지게 된다.
- ③ 管理職 下位職을 莫論하고 轉補나 離職率이 低調하여 昇進의 길이 막히고 있어 將來에 대한 期待가 없다.
- ④ 1963年 이후 國會事務處內 行政職(4甲)의 昇進率은 定員 157名中 32名이 昇進하여 20.4%인데 比하여 速記職은 定員 89名中 5名으로 5.5%에 不過하다.
- ⑤ 速記士는 10分 또는 20分씩 交代로 勤務하므로 會議全體의 흐름이나 內容을 把握하지 못하고 速記를 하게 된다.
- ⑥ 速記係長은 會議內容을 알지 못함으로서 速記原稿와 發言과의 附合性 與否를 判斷할 수 없으며 따라서 速記士가 誤聽 誤記를 犯하는지의 與否를 把握할 수 없다.
- ⑦ 會議室 環境은 速記業務의 正確 與否를 判가름하는 要諦로서 會議場內 外의 騷音등으로 記錄하는 速記士만으로는 正確한 會議錄을 作成하는데 커다란 隘路가 있다.

다】技術向上에 關하여

- ① 速記士는 技術向上을 위해서 꾸준히 研磨하고 努力하지 않으면 技術의 沈

滯 내지는 退步를 가져온다.

- ② 現在 人事制度面에 있어 速記職의 特殊性이 考慮되어 있지 않다.
- ③ 課 自體教育만으로는 技術向上에 커다란 效果를 期待할수 없다.

4. 結 論

以上 速記職公務員의 士氣를 昂揚함으로서 業務能率의 向上을 期하고 正確하며 迅速한 會議錄을 作成케 하기위하여 問題點을 實態에 따라 分析한 結果 速記職의 職列 및 轉補制度를 再調整하여 惰性에서 오는 技術의 沈滯와 士氣低下를 막고 他職으로 轉出의 機會를 賦與함으로서 服務意慾을 鼓吹하기 위한 方法으로 速記職列 및 轉補制度의 再調整을 檢討할 必要性은 一應 認定하나 여기에는 國家公務員法 國會人事規則등의 改正이 隨伴되어야 하므로 事務處 全般的인 調整時에 같이 다루기로 하고 現實에 適應한 措置로서 다음과 같은 事項을 施行함이 妥當하다고 思料됨.

가】速記手當引上 및 差等支給

現行 一律的으로 月額 8,000원씩 支給되는 速記手當을 아래와 같이 級數에 따라 差等支給함이 妥當하다고 判斷됨.

3級以上	月	12,000원
4級甲	月	11,000원
4級乙	月	10,000원
5級甲	月	9,000원
5級乙	月	8,000원

나】速記監督官制의 新設

國會에서의 發言은 古文章 特殊專門用語 外來語 方言등 多樣하고 거기다가 不分明한 發音이 많아 速記士 한組가 10分 또는 20分間 會議場에 參席하여 速記하는

것에 그치기때문에 會議의 全體 흐름이나 論議中인 案件內容을 把握하기 어려워 誤聽 誤記를 免할수 없어 이런 不完全性を 補完하기 위하여 長期速記實務經驗者中 우선 6名을 事務官으로 昇進 速記監督官으로 補하여 直接會議場에 參席시켜 一貫된 會議進行을 傍聽 메모 한것을 토대로 原稿를 校閱케 하여 誤謬를 補完함으로써 보다 正確한 會議錄을 發刊하여 速記業務의 信賴度와 會議錄의 公信力을 높이고 또한 速記職公務員에게 昇進의 機會를 賦與함으로써 士氣를 昂揚시키는 一石二鳥의 效果를 거둘 수 있다고 判斷됨.

【다】 昇進時 實技試驗實施에 關하여

速記士들의 速記技能은 오랜 經驗을 通해서 熟達되는 面도 있으나 反面 惰性으로 因한 技術의 沈滯退步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昇進所要年數에 到達하면 自然 昇進되는 制度를 止揚하고 初任에서

最少限 2年の 所要年數가 要하는 5乙에서 5甲, 5甲에서 4乙로의 昇進時에는 一般 行政職公務員의 昇進方法과 달리 速記士의 技術向上을 위하여 嚴格한 實技試驗制度를 採擇함이 妥當하다고 判斷됨.

5. 建議事項

- ① 速記手當의 級數別 差等支給을 實施하여 줄것
- ② 速記監督官制 實施를 위하여 速記主事 6名을 速記事務官으로 定員調整하여 줄것
- ③ 速記士의 循環勤務를 위하여 速記課 編輯係 行政職 定員을 速記職으로 調整하여 줄것.
- ④ 速記技術向上을 위하여 速記職5級에서 4級으로 昇進時 實技試驗을 實施할 수 있게 人事規則을 改正하여 줄것

別表 1 ① 日本國行政職과 速記職의 給料對照表 1969年 現在

職類 職 級	行政職(月額)	速記職(月額)	差 額
係 長 級	¥ 59.500	¥ 90.700	¥ 31.200(52.4%)
主 事 級	51.100	77.400	26.300(51.4%)
書 記 級	41.800	63.300	21.500(51.4%)

註：이 表는 日本國會 兩院의 行政職과 速記職의 給料表에서 編制에 의거 對等한 階級의 給料月額이며 共히 15號俸基準

② 美國의 他職과 速記職의 給料對照

1969. 7. 1~1969. 12. 31

職 級	6個月分
事務總長	弗 17.629 ⁵⁰
書記長	16.315 ⁵⁰

議 事 官	16.315 ⁵⁰
議 事 錄 官	14.125 ⁵⁰
專 門 委 員	15.658 ⁵⁰
速 記 課 長	16.315 ⁵⁰
本會議速記士	15.658 ⁵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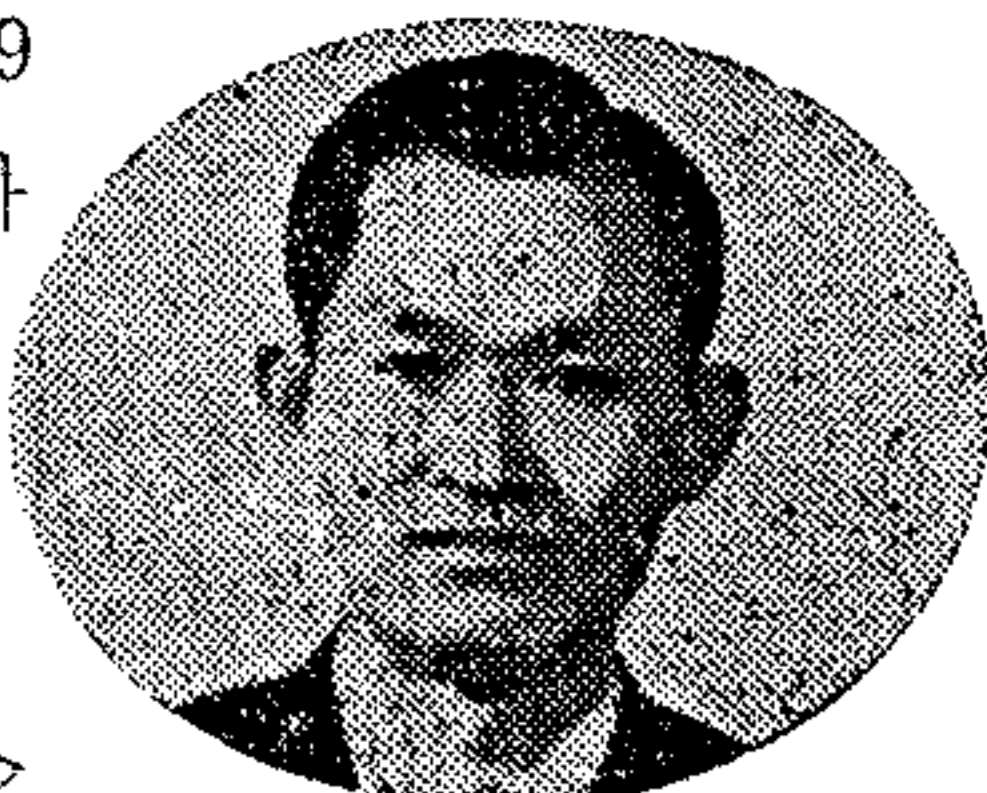
速記能力者

——大衆普及을 爲한
速記法式的 創案을 바라며——

金 永 善

단기 4288년 그러니까 서기 1955년에 民議院 速記課에 근무하다가 징집영장이 나와 論山訓練所에 入隊했다. 그後 光州 상무대를 거쳐 길지않은 軍隊生活을 하는 동안에 <速記를 배웠다> 또는 <速記를 할줄안다>하는 동료군인을 많이 만났다. 그때만 해도 私設 速記學院이 많았던것으로 기억이 나니까 몇달 동안 속기를 배운 경우 또는 어떤 個人學院의 資格證을 가진 경우등 어떤 경우든지 <速記를 할줄 안다>는 말을 서슴치 않고 했던것 같다. 그때 나는 짧은 기간이나마 速記實務에 從事했던 經驗이 있는 지라 보통 1분에 300字 以上の 능력없이 속기 할수있다고 말할수 없다는 立場에서 있었고 1분에 300字 程度의 能力없이 速記할수 있다고 떠드는 여러사람들을 叱責된 사람으로 取扱까지 했다.

그러던 내가 速記協會의 會員資格審査 및 技能檢定規定의 起草를 하는데에 關與하게 되어 規程案을 草案해보니 사실상으로 1분에 300字 以上을 쓸수있어야만 速記能力者라고 할수없는 現實을 깨닫게 되었고 여러사람의 손을 거쳐 國語速記의 경우 1級부터 8級까지 8級의 技能等級을



두게 되었다. 그 내용은 2급이 1분에 300字 以上으로 正確도가 98%以上 8급은 120字 以上으로 正確度 90%以上으로 確定됐다. 그러니까 1分間에 120字 정도를 쓸수있는 경우도 速記技能8級이라는 것을 公認하게 된것이다. 보통 한글을 1분에 70字 정도 쓴다고 하니까 120字 정도만 잘 써도 電話를 받고 메모를 하고 여러가지로 유용하게 쓸수있을 것이다. 지금도 對談이나 會議過程을 速記方式에 따라 速記하려면 역시 300字 以上の 實力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以下の 等級도 그 等級대로 유용한 使用處가 있다는 것이다. 速記란 사람이 筆記에 利用하는 한가지 道具에 不過하니까 빠른 말까지 한字 빠지않고 써야만 速記라고 固執할 何等의 理由가 없다.

또 正確度 90%나 95%나 하는것도 문제다. 速記는 表音記號文字라 할수있기 때문이지만 正確度の 계산에서는 잘못 쓴 글자 몇字, 빠진 글자 몇字, 添加된 글자 몇자, 해서 글자 수만이 문제가 된다. 실제 우리가 말을 그대로 글로 옮기는 것이 目的이지만 다 같이 不完全한 경우 (이런 예가 大部分이지만) 形容部分의 한句節을

못쓴것 보다는 核心部分 또는 肯定을 不定으로 한字나 두字를 잘 못 쓴 경우가 더 無價値한 記錄이 될수있는 것이며 총자수는 얼마 틀리지 않았지만 常識不足으로 모르는 말이 많아 몇개 主要單語를 잘못 써버리면 그 原稿의 價値를 낮게 評價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採點基準을 바꿀만한 새로운 기준을 設定할 方途가 없어 그냥 글자세기 方法을 쓰고 있는것 뿐으로 보인다.

「速記概觀」에서는 優秀速記士는 말과 理論을 잘 理解하고 그 發言內容을 어그러뜨림없이 記錄하며 自由로이 用語를 구사하며 文句에 批判的 判斷을 加할수 있는 者라야 우수한 速記士라고 했다. 이것은 豊富한 常識을 가진 위에 우수한 速記能力을 要求하고 있는것이다. 누구든지 自己가 모르는 外國語를 듣고 그 音을 잡을수 있겠는가? 모르는 말은 들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 넓은 知識위에 速記技能을 添加시켜야 우수한 速記士가 될수있다는 結論이다.

그렇다면 速記人들은 速記人底邊擴大를 위하여 보다 배우기 쉬운 速記方式의 開發을 不斷히 해야겠다. 解放以後 많은 速記法式이 考案 發表되었고 實用化 됐다고 할수 있지만 과연 몇명이 速記를 배워서 몇명의 速記士가 養成됐는가 反省할 必要가 있다. 배운者는 數萬명이 될것이요 그중 200名 정도의 速記士가 배출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여기에는 어떤 方法으로 教育을 시켰는

가? 教育 시킬때에 어디에 目標를 두었는가? 어떤 速記方式을 擇했는가? 하는 새가지 點에 反省이 있어야 하겠다.

첫째로 速記方式 다시말해서 한 速記符號組織을 構成시킴에있어 쓰기쉽고 읽기쉽고 배우기 쉬운것이 되어야겠는데 가장最近에 나온 議會法式이 速記符號面에서 여러가지 合理性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도 우리말의 組織까지는 研究하지 못했다. 앞으로의 速記方式의 研究는 速記의 符號와 우리말의 組織을 同時에 研究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教育의 目標가 문제다. 專門速記士의 일자리는 좁다. 그 좁은 專門速記士의 자리만을 놓고 專門速記士가 될 速記教育을 많은 사람에게 시킨다는것은 不合理하기 짝이 없다. 技術教育은 實用性和 直結되어야 하지않겠는가. 많은 수의 職業速記士가 必要없다면 職業速記士는 必要한 수만큼 養成이 되어야겠고 文明의 利器로서 速記를 大衆化시키는것은 速記符號自體가 배우기 쉽고 읽기쉬우며 고도의 技術을 必要로 하지않는 것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몇週間만 배우면 200字 정도 쓸수있는 것이어야 하지않을까. 職業速記士 教育用的 速記法式의 改良에도 계속 努力을 해야겠지만 大衆化시킬 速記法式을 따로 開發할 必要를 느낄때가 많다. 特히 短期講習의 效用度를 높이기 위해서.....

(國會速記第3係長)

☆

☆

☆

記 錄 古 今

崔 錫 模

高麗朝부터 「春秋館」이라고 하는 記錄擔當 官廳이 있었다. 충숙왕 12年(1325)에는 春秋館이 藝文春秋館에서 두개의 官廳으로 分離, 공민왕 5年(1356) 史館으로, 同11年 다시 春秋館으로 還元되어 時政의 記錄을 擔當하였다.

李朝에 들어와서 亦是 時政의 記錄을 擔當하는 春秋館이 太祖 1年에 設置되어 高宗 31年에 廢止될때 까지 무려 502年間 存置되었다.

지금 서울大學校 中央圖書館과 舊王宮文庫에 각각 保管되어 있는 「李朝實錄」은 李朝史研究의 重要な 史料인데 李朝實錄은 李朝歷代 王의 正史로써 1893卷, 848冊으로 太祖~哲宗, 25代 約 500年間の 史實을 記錄한 것으로써 實錄編修는 實錄纂修都廳을 두고 春秋館의 「日省錄」「承政院日記」等を 史料로 한 것이다.

오늘날 韓國에서는 (1947~現代) 國政을 論하는 「國會」라는 立法機關이 있는데 이 國政을 論하는 議事의 記錄을 擔當하는 「速記士」가 있어서 一字一句도 빠짐없이 國會 議事의 記錄을 擔當하고 있는 것이다.

麗朝나 李朝의 경우, 君王이 諸重臣의



參與下에 全國의 重大事件에 對한 會議에서 얻어진 結論을 가지고 政策이 決定되면 君王의 裁可를 得하여 이것이 곧 法令이 되는바 이 會議에는 반드시 「春秋館」에서 나온 史草(史官이 記錄하여 둔 史記의 草本)를 쓰는 官吏인 「史官」이 그 會議의 經過를 빠짐없이 일일이 記錄하여 保管해 두었다가 그 임금이 돌아간 뒤에 그의 一代의 實錄으로 꾸며 내는데 史官은 事實 그대로 記錄하는 것이 生命이었던 것이다.

오늘날 國民의 代議機關인 國政을 論하는 國會에는 반드시 「速記士」들이 國會本會議, 常任委員會, 特別委員會, 國政監查 등에서 事實 그대로 記錄하는 것이 그의 義務요, 職責인 것이다.

「史官」은 주로 그 資質이 優秀하고 총명한 젊은 官員에서 뽑았으며 그 選拔에 있어서도 복잡한, 치밀한 節次를 밟아 適任者를 뽑았다고 한다. 그 例로 史官選拔의 責任을 맡은 者는 얼마동안 몸을 端正히 하고 壇을 보아 香을 피우고 「만일 本官이 適任者 아닌 사람을 史官으로 천거한다면 어떠한 무서운 재앙을 받아도 좋습니다」하고 天地神明께 맹서를 한 뒤에

선발하였다고 한다.

國會에서 速記士 모집의 경우, 公開競爭으로 一般行政職과 같은 科目以外「速記」科目이 더 追加된 二重試驗을 거치게 되는바 이「速記」는 20歲를 前後한 年代의 사람에게 1年餘의 피나는 點, 線, 位置, 速度의 修鍊을 닦은 忍耐의 道를 通達한 實로 實力과 技術을 兼備한 人材中에서 極少數의 人材를 採用하여 議政의 記錄擔當業務를 맡게 한다.

옛날의 史官은 비록 그 職位는 높지 않지만 그 莫重했던 職責 때문에 嚴選에 嚴選을 거듭하여 任命된 史官은 官으로서 王朝에 絕對忠誠하였다.

오늘날의 速記士는 비록 그 職位는 높지 않지만 그 맡은바 職責은 自由民主主義政體下의 議政史를 길이 後孫에 남기는 重責을 맡아서 官으로서 國民에게 奉仕하

는 것이다.

史官이 官에 忠誠을 했건, 速記士가 民에 奉仕하건 그 勤務處에 대해서는 여기에 先 論外로 치더라도 兩者 共히 그 莫重한 職責에 앞기까지에는 實로 눈에 보이지 않는 피눈물 나는 忍耐와 努力의 結晶으로써 이루어진 것일 것이다. 그들은 남들이 놀고 있는 동안에 熱心히 그에 必要한 學問을 익혔다. 마치 높은 山 큰 바위 틈을 줄줄 헤치고 나오는 가느다란 샘줄기 같이 끊임없는 꾸준한 忍耐力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政令 記錄 擔當者로서의 資質을 갖추지 못하였으리라!

靑史에 길이 남길 議政史의 記錄을 擔當하는 우리들! 事實 그대로의 完全한 完成品을 남겨 주기위해 우리 모두 平素에도 같고 닦아야겠다.

(國會速記第4係長)

記者任命

그동안 本誌 編輯 및 取材記者로서 敏活한 活動을 해 준 吳준根記者(3月 16日 入隊)와 河良培記者(4月 28日 入隊)가 軍에 入隊했다. 協會로서 이 두분의 勞苦에 깊이 感謝를 드리며 또한 榮光스런 軍人生活이 되기를 빈다.

따라서 協會에서는 空席中인 두 編輯 및 取材記者를 다음 분으로 任命發令했다.

(71年 6月 10日字)



金致元 記者



金仙玉 記者

協會와 나

崔秉秀



本協會가 文化公報部の 社團法人認可를 받은 것이 1969年 4月 14日이니 2個星期이 조금 지났다.

그 동안 法人團體로써 體貌를 갖추느라고 온갖 努力을 傾注한 끝에 이제는 民族中興에 앞장선 名實相符한 團體로써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社團法人으로 認可를 받기전 速記界의 元老 諸賢과 前任 任員 여러분 그리고 速記界를 育成시켜 주시는데 手苦를 아낌없이 해주신 各界 人士들의 勞苦의 結晶이 오늘의 成長된 社團法人 大韓速記協會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感謝를 드린다.

이제 本協會는 定款 第3條에 規定되어 있듯이 速記人의 集結體로써 速記文化의 研究 發展 및 普及과 速記人의 資質向上 相互協力 親睦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하여 出航한지가 日淺하지만 그 동안 많은 活動들을 해 왔다.

昨年度에 會員들의 積極的인 協調와 參與로 速記展示會를 盛況裡에 開催하였고 今年 4月 17日에는 全體 會員이 參加한 가운데 第1回 體育大會를 空氣좋은 북악산 중턱에서 가진 일들은 두고 두고 흐뭇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나는 이제까지 솔직히 얘기해서 本協會의 一員으로서 協會에 대해서 그렇게 積極的이고 熱意있는 姿勢로서 參與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總會에서 格에 맞지 않는 協會의 任員이라는 크나큰 벼슬(?) 자리를 맡고 스스로 熟考를 해 보았다. 協會의 일꾼이 되기 전 내가 協會를 위해서 果然 무슨 일을 했으며 했다면 얼마만한 協助를 해서 보람을 느껴본 적이 있었던가? 또 協會에 대해서 一般에게 얼마만큼의 理解와 普及을 시켜 주었고, 얼마만큼의 積極性을 띠었었던가. 생각을 해 보면 해 볼수록 모든 것이 부끄러움 뿐이고 會員의 資格을 가졌다는 것이 너무도 무안할 뿐이고 惶悚할 뿐이다.

그러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억제하여 덮어버리고 앞으로 주어진 나의 責務를 다 할것을 생각해 보았다. 過去의 前任者들이 쌓아 올린 金字塔를 더욱 빛내 보겠다고.....

去般 事業理事 高用培氏와 總務理事 蔡康熙氏의 協助를 얻어 協會 1·4分期에 대한 書類를 文化公報部에 接受시키러 갔을 때 不敏의 所致로 擔當者의 찬절한 교육(?)을 서너 時間 받고 돌아와 부랴 부랴 다시 修正된 部分을 몇 번 고쳐 가지고 接受시킨 일이 있었다.

정말로 當時에는 괴롭고 귀찮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 보았으나 그래도 지금은 整頓된 狀態에서 協會의 일을 맡았다는 것에 自慰를 해 보며, 前任者들의 勞苦는 至大했다는 것을 이제야 攄得하게 된 것이다. 다시 한번 前任者들의 勞苦에 感謝를 드린다.

이제 民族中興의 歷史的 課業을 成就하기 위하여 우리의 現實을 直觀하며 우리의 生活을 評價하고 反省할 수 있는 하나의 햇불이 밝혀진지 이번이 6號가 되었다. 우리 速記人의 生活을 낱알이 파 헤치고 우리 速記界가 近代化 作業에 精進할 수 있도록 우리 速記界의 生命을 슬기롭게 設計하고 알찬 마음의 良識을 키워 나갈 수 있는 素地를 마련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우리 速記人의 끊임없는 發展에 寄與할 수 있도록 「速記界」가 永久的으로 生命을 이어가야 할 것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 速記人의 生命이라는 것을 何時라도 잊어서는 아니 되겠다.

速記人의 氣像을 드높이고 實質的인 速記文化向上을 꾀 해야 될 것이며, 速記人으로서의 隘路點을 克服해 나갈 수 있는 實力을 培養하는데 速記界가 더욱 굳건한 길잡이가 되어주었으면 한다.

또한 速記人으로서의 姿勢를 確立하고 우리 速記界의 앞날을 이끌어가는데 좋은

벗이 되어 주었으면 한다. 좋은 벗을 싫어한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진대 「速記界」가 우리의 좋은 벗이 되도록 잘 키워가는데 우리 速記人들은 義務와 責任을 다 해야 될 줄 안다. 本誌에 恒常 多樣的인 좋은 素材를 기재하여 모든 사람에게 勇氣와 기쁨을 주고 速記文化를 바르게 理解시키고 이룩하는데 速記人들이 自發的이고 能動的으로 參與할 수 있도록 速記人으로서의 使命感을 굳게 가져야 되겠다.

언제나 速記人들이 熱意있고 誠意있는 姿勢로 對話의 廣場으로 벗을 삼게 된다면 速記界의 發展은 勿論이려니와 速記人의 人和團結도 더욱 堅固해 질 것이며 怒濤의 海上에서도 무난한 航海가 될 것이니 速記人의 積極的이고 能動的인 參與意識을 鼓吹시켜 주었으면 한다.

그리하여 앞으로는 名實相符한 團體로써 「速記界」가 大韓速記協會의 거울이 되어 速記文化 發展과 速記人間의 人和團結 親睦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 그리고 앞으로는 大韓速記協會 會員의 一員으로서 協會를 위한 일이라면 나의 手蒿를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 한다.

<本協會 財政理事>

秘密取扱認可

71年 4月 15日자로 國會速記士 全員에게 各種 國會速記業務上 國家安保 秘密관계를 取扱할 수 있는 秘密取扱認可證이 發付되었다.

새로운

가능성을 향한 공상

徐正南



言語란 社會的 客觀構造이며 一定한 種類의 記號組織이며, 秩序잡힌 音韻記號의 體系이고 一定한 人間社會에서 생각과 느낌을 傳達하는 手段이다. 이와 같은 言語를 또 生活의 한 手段으로 하는데는 時空的으로 그의 制限性이 있고 이를 記錄, 傳達하는 手段으로 다시 一定한 形態의 記號를 約束한다. 이것이 文字이다. 速記는 이 같은 文字中 特殊한 使命을 부여 받은 特殊文字이다.

그런데 言語란 歷史의 흐름과 함께 無限히 生動的이고 創造的이며, 人間의 生

活을 通해 複雜하고 多樣한 關係를 形成한다. 이렇듯 必然的으로 生成變遷되는 多義的인 言語를 一義的인 記號로서 대치하려는 努力은 애당초 失敗하게 되어 있는 試圖일른지 모른다. 速記文字도 여기에서 例外일 수는 없다.

이와 같은 言語現象을 단순한 機械的인 構造로만 觀察할 것이 아니라 보다 根本的인 言語의 關係構造에서 理解하고 言語의 包括性을 뒷받침함으로써 加速化 하는 言語에 機先을 制할 수 있는 解決의 실마리를 爲하여 어찌면 速記人의 洞察과 自我發見이 이루어져야 할 때가 왔는지도 모르겠다. 어찌든 空想은 創造的 想像과 함께 過去의 經驗을 再組織하는 것이지만 그 結果와 現實이 符合하지 않아도 좋다. 過去의 經驗을 再組織하는 過程에서 創造的 想像과 現實과의 對照를 이루어 우리가 無意識中에 범하기 쉬운 過誤를 訂正하게 되는 契機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期待에서 空想의 意義를 느끼는 바이다. 그런 意味에서 空想은 단순히 現實의 欲求不滿을 解消하려는 代償(Overcompensation) 임과 동시에 새로운 期待에의 趨動(Drive)이 될 수 있다고 믿어 지나친 合理化는 아닐 것이다.

많은 境遇·위대한 發明이나 創作은 空想에서 비롯된 創造的 想像의 產物임을 우리는 是認한다. 골목길의 만화가게에서 웃기던 달나라 旅行이 오늘의 現實로 變換한 것도 그리 오래전 일은 아니다.

이제 速記의 當面한 問題意識을 간단히 究明함에 있어 미처 實驗的 研究를 하자 못한 탓으로 필자의 體驗에 根據하여 몇 가지 質問을 提起한다. ① 速記를 한 後 번문을 하기前의 時間의 長短에 따라 어

떠한 차이가 있는가? ㉔ 주어진 狀況 (Situation)——演說場所 演士의 제스처어 音聲이나 패턴等——번문의 能率에는 어떠한 關係가 있는가? ㉕ 速記後 즉시 읽고(一讀 혹은 그 以上) 번문을 始作한 때와 그렇지 않은 경우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㉖ 一般的으로(內容의 難易의 區別없이) 어떠한 때에 번문이 잘 되는가? (이 문제는 內容과 表記의 正確度等 많은 問題別로 검토할 수 있을 것임) 以上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통해서 其實 速記文字 그 自體의 機能外에 상당히 많은 다른 要因을 우리는 活用하여 번문을 해 왔다는 事實을 首肯할 것이다. 즉 質問 ㉔의 경우 忘覺曲線의 原理가 適用되고 있음을 示唆하고 있고 ㉕의 경우 실제로 他人이 作成한 速記文을 번문할 때 (엄격한 規格에 依하여 가장 精確히 表記 했을지라도) 事實은 記憶의 要素들이 다분히 作用하였음을 暗示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演說當時의 모든 狀況들—形, 位置, 內容, 音等—이 한테 얽혀 調和를 일으키고 이것이 速記文字를 媒介物 (어느 것을 媒介物이라 하든지간에)로 하여 번문에 寄與하고 있음을 볼때 이와 같은 原理를 學習을 通하여 活用할 수 있음을 暗示하는 것이다.

그리고 質問 ㉕의 경우는 忘覺曲線의 原理外에 學習의 效果와 時間과의 關係에 어떠한 影響이 있는가를 暗示하는 질문으로서 學習方法의 重要함을 再認識케 하는 것이다. ㉖의 경우 強한 印象으로 回生되는 것이 번문이 잘 됨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記憶心像의 問題로서 訓練(學習)에 따라 人爲的으로 可能함을 體驗하는 바 있다.

이상 간단한 힌트에서 다른 側面에서의 速記術向上의 아이디어 啓發의 餘地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여기에 또한 思考와 推理의 訓練을 쌓을때 보다 큰 結果를 期待할 수 있으리라고 展望한다.

이제 필자의 空想을 하나만 들어 볼까 한다. 그러기 전에 우리 人間은 不完全한 既存의 知識의 基礎위해서 人間에게 주어진 무궁무진한 潛在能力을 消極的 有限性에 固着시켜 버리는 일이 종종 있음에 注意를 돌려줄 것을 바란다.

1 초를 10分 活用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우리들이 레코드의 音盤대신 종이를, 그리고 앞에서 들은 모든 原理와 想像力을 동원하여 動力으로 삼고 運筆을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야말로 人間 機械論的 空想이다.

우리가 當面한 問題는 듣고 받아 쓰는 경우이고 하나의 입을 통하여 무진장한 언어를 구사하는데서 精神作用을 힘 입는 點과 하나의 손으로 받아 쓰는데는 亦是 精神作用이라는 共通點이 있는 反面 또 하나의 손은 不可用資源(?)으로 放置해 두고 있는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단한 例를 들겠다. TAT나 로르샤하와 같은 心理檢査를 보자.

똑 같은 주어진 상황(Situation)에 對하여 풍부하고 各異한 心像을 投射하는 것이 흥미롭다.

즉 간단한 線과 點과 位置等을 上述한 想像의 方法을 곁들여 얽어 調和를 이루며 內容을 부여해 보자는 것이다.

다시 例를 들면 고바우 만화 1회분을 해설을 제거한 후, 각자가 자기의 想像으로 內容을 부여하는 훈련을 하고 다음에

는 逆으로 一定한 內容을 몇개의 線과 點과 位置等に 想像力을 동원하여 內容을 부여하는 훈련을 해 보자.

이것이 可能한 경우 보다 많은 內容의 언어를 무더기로 함축해 버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몇분 間의 演說內容을 도매값으로 처리할 수도 있음을 假定해 보자.

이러한 多義的이고 高次的인 研究와 訓練이 이루어지면 레코드의 音盤을 代身하여 몇장의 종이를 들고 想像力과 運筆이 그 위를 여유만만하게 지나갈 때 正確과 迅速을 위해 또 하나의 豫備資本인 左手는 側面支援의 妙技를 發揮할 수도 있으

리라는 未完成 空想에 半이라도 首肯해주는 同志가 있다면 이는 創造的 假說의 基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結論的으로 機械的 手段에만 依存할 때 우리는 여전히 需要面에서 特殊的이고 可動과 操作面에서 制限性을 不免할 것이라는 생각이고 모든 學問이 그렇듯이 한 마리의 산토끼를 目的하여 山에 포위진을 치는 심정에서 言語學에 對한 哲學的 考察의 터위에 言語心理現象과 보다 폭 넓고 깊은 次元의 研究가 이루어지는 날 우리는 記錄의 受苦에서 萬歲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韓國法式出身>

放 送 出 演

○ 4月 14日 아침 8時 極東放送 (FBS—HLKX 1190Khz)의 要請으로 <現代인과 速記>라는 題目으로 10分프로의 對談이 放送되었다.

(出演者: 孫弘基 · 梁源龍)

○ 역시 基督教放送 (CBS—HLKY 840KC)의 要請으로 5月 3日부터 5月 8日까지 1週間 밤 11時 35分 職業巡禮프로에 出演 <女性과 速記>라는 內容이 한밤의 高요한 音樂과 곁들여서 全國에 放送되었다.

(出演者: 柳智永 · 申世華 · 梁源龍 · 鄭尙美 · 孫弘基 · 金英姬)



速記를 해야지

建設部 UNDP 鄭 尙 美

내가 延大 英文科 四學年 在學때, 第十五次 世界敎職者大會가 서울에서 열렸다. 總長의 추천으로 英語 案内者가 되어 여러 會議場을 돌며 案内도 하고, 또 가끔 會議討論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다.

國際會議의 이 첫번 經驗때 特히 눈에 뜨인것은, 同時通譯士 및 速記士였다. 一個人이 무려 五個國語를 流暢하게 한다던가 (그야 구라파에서 아버지는 佛蘭西系, 어머니는 獨逸系인 이태리人이, 學校에서 英語를 배우며 스페인 아가씨를 사귄다면 可能하겠지만, 子母 二十四개로 이루어진 우랄알타이系 韓國語를 使用하는 單一民族인 우리에게겐 끔찍할 정도로 놀라운 일이다) 또는 눈을 감은듯 조용하고 태연하나, 손은 실사이없이 놀리는 귀신 다음가는 사람도 있었다. 그야말로 人才들이다.

그 후 運이 좋아 日本 및 美國을 國家代表로서 訪問할 機會가 있었다. 政府招請 國際學生會議였으므로 同時通譯士나 速記士가 등장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매우 진지하고 열면 討論회의였다. 韓國의 立場을 비록 一個人의 意見이나마 알리게

될때는 기쁘기도 했으며 간간이 韓國 固有의 風習 내지 춤과 노래를 紹介할때는 흐뭇한 감도 느꼈다.

1968年度에는 Reader's Digest 社長의 獎學生으로 世界 十個國에서 온 學生代表들과 함께 Minnesota Macalester College에서 一年間 공부하게 되었다. 學生이 二千名 정도의 아담하고 좋은 學校였는데 서울에서 大學을 卒業한 後였기에 스피치 (Speech), 연극등의 과목을 擇했다.



아침 눈뜰때 부터 저녁 잘 때까지 하루종일 英語를 하자니 그리 쉬운일이 아니었다. 生活엔 곧 익숙해졌으나 講義를 듣는것은 좀 時間이 걸렸다. 敎授의 講義를 듣는데 온 神經을 集中하다

보니 공책은 하얀채로 남아있었다. 듣는대로 손가락이 돌아가지 않는 것이었다. “아차, 速記를 했었더라면...” 한 班 美國 친구에게 매일 얼굴을 붉히며 공책을 빌릴때 나도 모르게 새어나온 말이었다.

그후, 집에 오기前 三個月間, 한 美國 個人會社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우선 會話에 問題가 없고 타자도 하니 clerktypi-

st는 됐으나 速記를 하는 친구와는 상당한 봉급의 差異가 있었다. 또 한번 “速記를 했었더라면…” 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하루는 이 會社 社長이 멀리 出張을 나가서 그 女秘書에게 商業上의 指示를 電話로 내리는 것을 보았다 한 五分間 그女자는 조용히 들으며 계속 蠟 종이 위에다 그림을 그리듯 손만 놀리고 있었다. “꼭 速記를 배워야지”——

집에 돌아와서 速記를 始作했다. 하지만 곧 다니게 된 職場의 일이 바빠지기 始作하고, 또 우리나라 國土計劃事業을 爲해 온 UN 事業管理人 및 佛蘭西專門家들이 여럿이고 보니 通譯 및 秘書로서의 내 일은, 우선 迅速, 正確한 意思소통 전달, 지시 및 처리였다.

이러다 보니 速記를 배우겠다고 입술을 깨물었던 마음가짐은 점점 나태해가고, 학원으로 가던 빠른 발걸음 마저 차차 늦추어졌다. 簡單한 便紙등은 速記로 記錄하여 곧 打字할수 있었으나 얼마후 定期報告書를 作成할때는 조금이라도 종이의 餘白이 있거나 잠간사이의 時間만 있어도

Spell-out 즉 토를 다느라고 餘念이 없었다. 이를 눈치 채 管理人이 웃음을 참지 못하자 가뜩이나 不安해진 나도, 벌개진 얼굴로 같이 웃지 않을수 없었다.

며칠전엔, 우연히 連絡이 와, 放送局에 英文速記士의 活動이라는 題目下에 열굴 뜻뜻해지는 이야기를 하였었고, 또 이제는 萬人앞에 活字로서 감히 速記 云云하게 되고보니, 정녕 이제야 말로 열심히 해야 할 때인가 보다.

國際會議때마다 外國速記士를 초빙해 온다니 外貨에도 적잖은 關係가 있겠고, 이런 國際會議를 통해 韓國을 紹介하고 나아가 國威를 선양케도 할수 있겠다. 한 손에는 부채를 들고 나는 듯 춤을 추며 다른 한 손은, 놀리기만 하면 모든 말을 척척 적는 印度 마법이상의 숨은 보물을 쥐고, 全世界代表가 모인 UN에서 韓國의 統一問題를 위해 일 할수 있다면… 과랴게 부푼 꿈을 꾸며 오늘도 나는 판에 박힌 노래를 부른다. “速記를 해야지”——

(1971. 5. 12)

公 知 事 項

本誌 지난 5號에 揭載된 協會理事 名單에 韓奉永理事가 빠져있었음을 알려드리며

역시 資格審査委員 名單에 盧英民委員이 빠져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정비결이 좋더니

—國會速記士採用試驗首席合格—

安 喜 榮

봄이 왔습니다.

내겐 찬란한 햇빛과 함께 화사한 웃음을 띤 봄아가씨가 찾아 온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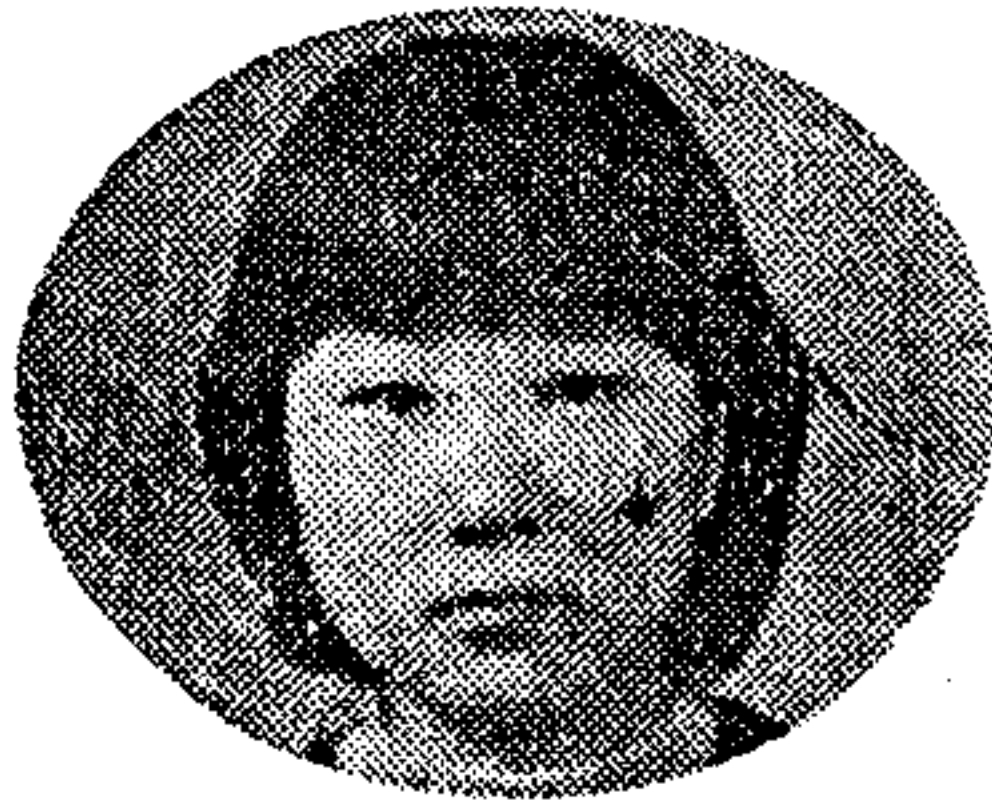
겨울이 가면 봄이 온다는 자연의 이치는 누가 만들어 낸 것인지요?

너무나 길었던 1년이라는 겨울은 내게는 참 힘겨운 추위였습니다. 그러나, 봄은 온 것입니다.

하룻밤 새에 나는 축하라는 말 속에 취해 버린 것입니다. 아직도 확실한 실감은 나지 않은채……

맨처음 교단에 서는 햇병아리 선생님 모양 그렇게 나는 몸둘곳을 모르겠고 송구스럽기만 합니다.

어느 연극상인가 수상하게 된 배우에게 소감을 말하라니까 그저 「기뻐요」「떨려요」라는 말만 자꾸 되풀이하던 그 배우의 심정 지금은 전부 이해할 것 같습니다. 내 노력의 결실이라고, 보람이라고 몇번이고 되뇌어 봤지만 꿈과 현실의 경계선이 어딘지 아직도 확실하지 않고 길에서 주운 보석모양 주인을 찾아 주자니 아깝고 갖자니 양심에 찔리는 그런 기분입니다.



이 전에는 기다림이란 말에 얼마나 많은 뉴앙스가 있을 수 입는지 몰랐었는데 발표를 기다리던 이틀사이에 그 많은 기다림의 의미를 모두 알아버린 것 같습니다.

이제 나는 알찬 열매, 그것도 품질이 아주 좋은 우량종을 내 손으로 딴 기쁨에 한껏 우쭐하고 누구에게든지 뽐내고 싶은 겁니다.

좋은 열매는 더 좋은 열매를 따기 위한 준비과정이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人生의 첫 걸음을——널 암스트롱의 巨步는 안되겠지만 나 자신의 巨步는 충분히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국회에 그것도 여자 직업으로는 최상이라는 속기과에서 시작하게 된 것, 내 노력의 댓가인지 행운이 굴러 온 건지 어리둥절 할 뿐이지만 친구들은 내가 월급을 타게 된다는 말에 저희들이 먼저 군침을 삼키고 있으니 아찔해 집니다.

그렇게도 높아뵈던 문턱이 하루아침에 이 만큼이나 낮아져 버렸고 예쁘진 않지만 부럽기만 하던 그 제복도 이제는 내 것이

된 듯합니다. 경이랑 성이한테 내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해야겠습니다.

사무처앞 게시판에 붙어 있던 내 이름 석자 평소에는 그렇게도 박력이 없어보던 내 이름이 이렇게 감당 못할 벅찬 기쁨을 안아다 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제 고백이지만 올해의 내 토정비결은 너무도 좋았습니다. 토정선생曰, 4月에는 하늘이 무너져도 나만은 월계관을 쓴다는 말씀이었으니까. 한가닥 바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 꼭 맞고 보니 도리어 어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토정비결을 열심히 볼 작정입니다.

포용력이 없다느니, 고집이 세다느니, 신경질이 많다느니 하는 엄마의 말씀속에 몇밤이 가고 몇낮이 갔어도 제 버릇 개 못준다는 식이었는데 내 신경질과 고집은 어떤 곳에서도 통하지 않는다는것, 이번 합격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밤잠을 안잔 노력의(덧가는 너무도 과분하게 안겨 주었고 매일매일 같이 걱정하던 차분이도 같이 붙어 주어서 더 기쁘기만 합니다. 한교실에서 공부하던 많은 친구들이 떨어졌으나 네가 붙느냐, 내가 붙느냐의 문제였으니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었던 것이고 이제 그 친구들에게 “우리는 아직 젊다”고 한마디만 위로해 주고 싶지만 건방지다고 할까봐……

나는 이제 내일의 내 직장에서 무엇이든 흔들리지 않을 침착을 배울것 같습니다. 열어 죽을 망정 결불을 쪼지않는다는 남산골 선님의 오만도 함께 너무 지나치게 깔끔한 척하는 결벽증도 고쳐지길 바라지만 욕심이 너무 과하면 연놀부같이 된다니요?

뚜껑을 열어 본 결과 1,2반에서 약속했나 한듯 男子 1명 女子 2명씩 합격되어서 神의 섭리인가보다고 우리는 마구 웃었습니다. 이제 합격했으니 데이트나 좀 하라는 선생님 말씀에 수공은 가나 열심히 속기공부하는 동안 상대가 도망을 가버렸으니 어떻게 해요……

정문출입이 자유로워 졌는데도 정문으로 들어가려면 왜 자꾸 순경아저씨의 눈치를 살피야 되는지?

붙고 나니 집에서도 대우가 좋아진 것 같아 조금 속상하지만 이다음 내가 엄마가 되면은 엄마의 마음을 알게 될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전혀 이해가 안되지만…….

무지무지 하게 구두쇠였던 친구한테 축하커피 한잔(이 월잔뒤엔 많은 뜻이 있겠지만)얻어 먹은것도 내 자서전 한 페이지에 들어 갈만 하겠고, 그동안 연습한 종이뭉치를 처분하려니까 30원밖에 안 준다나요? 차라리 아침저녁 감상이나 하겠다고 마루에 쌓아 놓았습니다. 이후에 내 박물관이라도 하나 꾸미게 되면 제일 가운데 진열해 놓겠다고 마음 먹으며……

이제 나는 긴장을 풀고 휴식을 취하고 싶습니다. 모든 일은 뜻대로 되었으니 어찌 기쁘차, 아니하랴 하시던 옛 先人の 말씀처럼 축하주나 몇모금 마셔볼까 합니다.

너무너무 노곤했던 봄밤은 거의 가려하고있고 푸른 여름이 오려고 합니다. 나의 여름, 나의 젊음을 퇴색하지 않게 아주 열심히 열심히 가꾸고 싶습니다.

내 작은 소망을 들어주신 신께 감사드리고 지난 1년동안 음으로 양으로 애써주신 선생님들께,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엄마께 예쁜 마음으로 감사 드립니다.

速記士와 바둑

金 東 遠

“速記士와 바둑” 이렇게 써 놓고 보니
뭔가 한 가지는 相通하는 面이 있는 것
같다.

“速記士”란 本是 正確을 期해야 한다.

相對方이 무슨 말을 하든지 間에 正確
하게 記錄을 하지 않고서는 本分을 다 하
지 못했다 할 것이다. 그럴진대는 文字의
正確度란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바둑”도 마찬가지다.

바둑이란 中國에서 堯 임금의 미려한
丹朱를 聰明하게 만들기 위해 바
둑을 創案하여 가르쳤다는 말도
있고,

혹은 舜임금이 그의 아들 商均
을 가르치기 위해서 創案해 냈다
는 傳說도 있는 것을 보면 바둑
이 堯, 舜, 時代에도 있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바둑이란 勿論 娛樂의 一種이다. 그러
나 人類歷史上 最高至善의 聖君으로 알려
져 있는 堯임금이나 舜임금이 미려한 아
들을 聰明하게 만들려고 바둑을 가르쳤
다는 것만 보아도 바둑은 단순한 娛樂만
이 아니라 사람의 頭腦를 聰明하게 만드
는데도 큰 效果가 있을 뿐만 아니라 近
代 社會에서는 빼 놓을 수 없는 사교물의
하나가 되고 있는 것이다.

비록 한때의 完작이 있었다 할 지라도

그 점을 活用해서 필경은 없어서는 안 될
要石이 되도록 戰局을 유도해 나갈 수 있
는 점이 바로 바둑이 지니고 있는 오묘한
眞理가 包含되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이 또한 우리들의 심리를 끌게 하
는지도 모르겠다. 상기한 점을 미루어 생
각할 때 바둑은 娛樂이기는 하면서도 一
種의 精神修養을 겸한 智德 涵養의 娛樂
이라고 나는 단정한다.

서로의 지기를 짜내어 相對方의 虛를
찌르면서 될 수 있는대로 我軍을
강게 희생시키면서 적군을 어떻
게 하면 많이 잡을 수가 있을 것
인지? 아니면 未 開拓地를 많이
確保할 것인지?

서로의 智와 智의 대결. 여기
에서 한 수만 正確히 읽지 않으면 我軍은
全滅이며, 그동안 未 開拓地를 相對方과
피나는 戰爭을 하면서 영토확장을 해 놓
았던 確地가 와르르 무너지는 비참한 運
命에 빠지는 것이다.

이때 나오는 탄성이란 가히 바둑을 두
어보지 않은 사람은 느끼지를 못할 것이
다.

이럴진대 그 “正確度”란 速記士와 바
둑이 일맥 相通하는 面이 있다 할 것이다.

今般 大韓速記協會의 後援下에 第3回
바둑大會를 조출하게나마 바둑 同好人들



이 多數參席裡에 그런대로 화목을 유지하면서 서로의 실력을 겨루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協會側에 먼저 감사를 드린다.

이번 대회를 보고서 한가지 느낀점은 흔히들 말하기를 「이기고 지는 것은 兵家之常事」라고들 말들은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닌것 같다.

막상 黑白을 쥐고 對局에 임하였을 때 지고난 氣分이란 과히 좋은 것만은 결코 못되는 것 같다.

어느 정도 道通한 사람인양 태연자약하게 화기 애애한 얼굴로 對局에 임하는 人格적인 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 대개의 경우는 점잖은 분들도 몇局을 지고나면 얼굴색이 변하기 始作하면서 목이 타다 못해 몸을 비틀면서 이마에 땀이 나기 始作하는 모양이다. 거기에 더 심하면 숨소리마저 거칠어지기도 한다.

이같은 광경을 어찌 “兵家之常事”라고 말을 할수가 있을까?

敗北란 本能的으로 싫은 것이다.

敗北란 슬픈 것이다.

그 누가 敗北를 좋아 하겠는가.

그러나 바둑 同好人들이여

敗北했을때의 一時的인 서러움과 다소의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서러워 하지 마오. 그대들은 멀지 않아 敗北의 짜릿짜릿한 쾌감을 느낄때가 오리라. 이 짜릿한 敗北의 쾌감은 어느 毒酒 보다도 強하며 어느 勝利 보다도 堂堂하다.

왜? 勝利者는 한판의 바둑을 두면서 數 많은 음모를 꾸며 적중시킨 음흉스런 者요,

敗北者는 한판의 바둑을 두면서 數 많은 축세의 機會와 사냥의 機會와 도둑질의 機會를 묵묵히 看過해버린 君子의 몸야다.

數 많은 敗北를 불사르고 나온 者만이 眞實한 勝利의 價値를 알것이다.

“勝利者”는 자만에 도취하기 쉬우나 “敗北者”는 날이 갈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비수를 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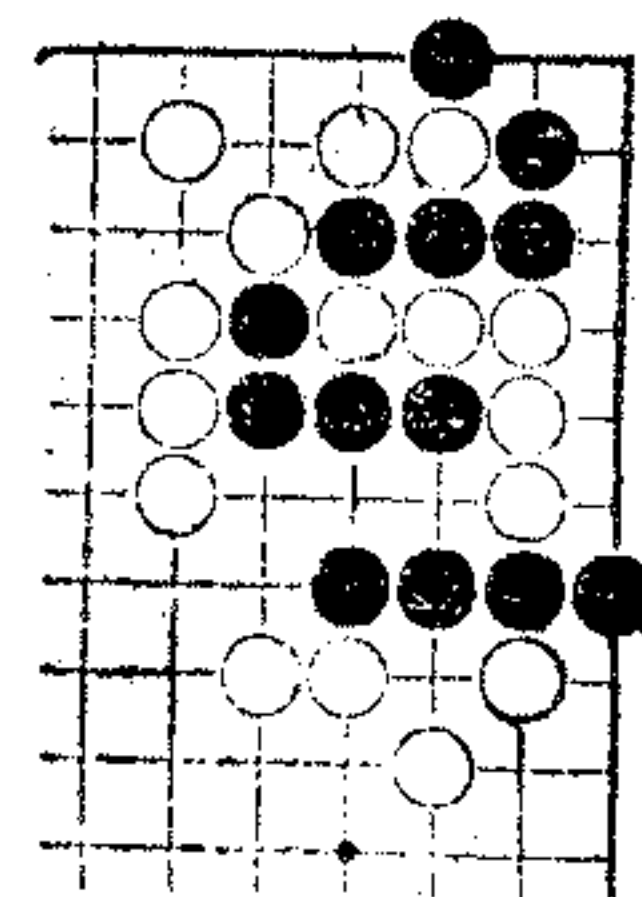
勝者들이여 자만을 버릴지어다!

(國會速記課)

바둑大會

지난 4月 3日 協會主催로 開催된 國會速記士들 간의 바둑大會에는 총 25名이 參加하여 熱戰을 벌인바 그 入賞者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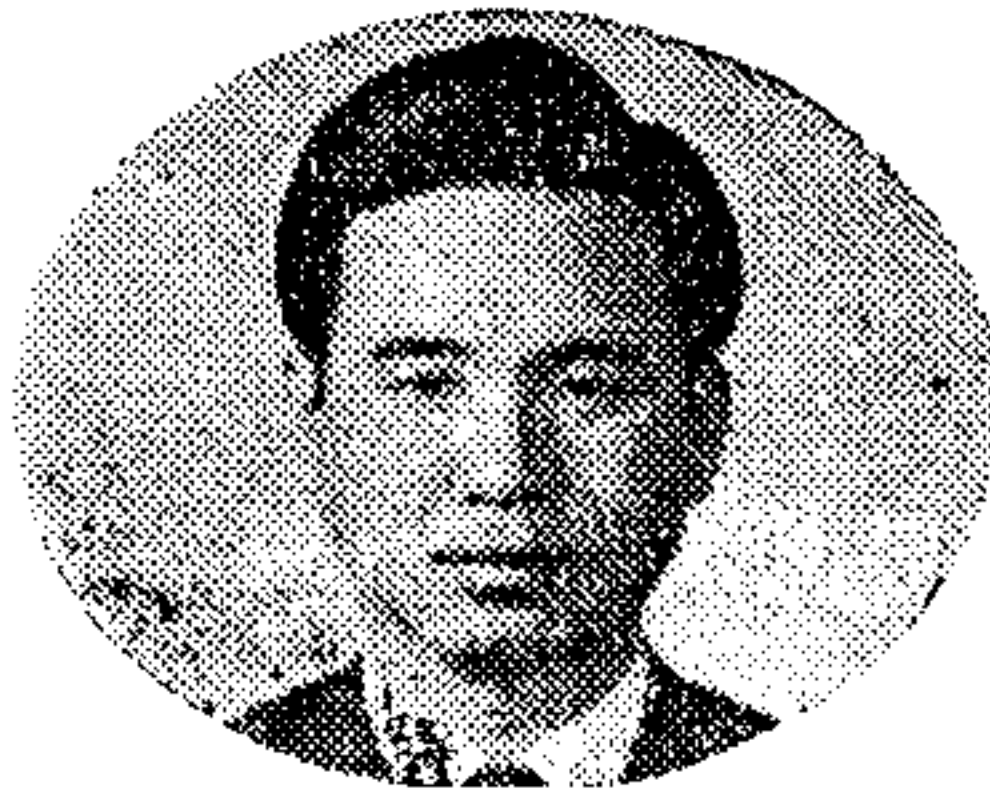
A組	優勝	金	善	弼
	2等	高	太	仲
	3等	李	燦	鎔
B組	優勝	崔	松	燮
	2等	鄭	源	道
	3等	楊	國	鎮



강포수와 복실이

徐 秉 運

내가 자라던 시골 마을에 강포수가 살았다. 벌써 20년 전 일인데 그는 엽총을 둘러매고 자전거를 타고 다녔다. 그 뒤에는 항상 개 세마리가 따르고 있었는데 포인타와 세파트 또한마리는 덩치가 큰 복실이였다.



죽보도 없고 이름도 없으면서 체구는 유난히 컸다. 잘 다듬어지지 않은 털속에 거의 눈을 감추다시피 하고서는 행동도 미련스럽고 육중했다. 그러나 강포수의 설명에 의하면 사냥에는 가위 명수로서 세파트보다 엄청나게 많은 값을 치르고 샀다면서 자랑이 대단했다.

그러던 강포수가 두달이 못되어 자랑은 심한 욕설로 변했다.

소문난 강포수의 험구는 복실이 뿐만 아니라 개의 옛주인에게 까지 번졌다. 사기를 해먹고 갔느니 죽일놈 살릴놈하고 대단했다.

이유인즉 그사이 서너번 이상을 사냥을 갔는데 복실이는 아무 공적이 없다는것이 다 평이 공중에서 떨어질때나 노루가 총알을 빗맞아 도망을 갈때나 명칭하니 보고만 있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강포수의 복실이에 대한 미움은 날로

날로 증가 똥값으로 팔아버리느니 아주 쏘아 죽여 버린다고 소리소리 질렀다. 그 개기름이 번지르르한 얼굴에 팔팔한 성격을 종합하여 보면 복실이가 죽게 될것은 뻔하다는 소문이 온 마을에 퍼졌다.

나는 이때부터 주인의 사랑을 받으면서 꼬리를 치며 살살거리는 포인타와 세파트가 미웠고 복실이한테 동정이 갔다. 힘없이 덜렁덜렁 5,6 미터나 뒤에 따라 다니는 그 개가 측은했다. 저 개가 정말 총맞아 죽을 것인가 나는 그 개를 볼때마다 불안했다.

그러던 어느날 저녁때였다. 우연히 강포수 집앞을 지나가다가 나는 깜짝 놀랐다. 복실이가 죽었구나하고.....

복실이의 흰털에 피가 점철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는 꿈쩍도 하지않고 강포수에게 안겨 있었다.

나는 덜컥 내려앉는 가슴과 상기된 얼굴로 울타리를 밀치고 뛰어 들어갔다.

그런데 웬 일일까 마루에 절터앉은 강포수는 희색이 만연했고 마당 가운데 서 있는 몇사람들은 무엇인가 내려다 보고 있는게 아닌가. 거기에는 200근쯤 되는

우람한 멧돼지가 누워있었다. 죽어 있었던 것이다.

멧돼지를 잡았다는 말을 들은 온 마을 사람들은 금방 마당으로 몰렸다. 그제야 나는 북실이는 죽지 않았고 강포수가 북실이의 상처에 약을 바르고 있음을 알았다.

<허 참 내말 들어보소. 이놈이 아니면 나는 죽었을끼라> 하면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한 강포수의 말만큼 좋아지만 멧돼지가 갑자기 강포수 앞에 나타났을 때 얼른 한방을 썩 뒷다리에 맞았으나 그대로 돌진..... 그야말로 위기일탈의 순간 바로 그때 북실이가 번개같이 뛰어들어 산돼지와 결전을 벌였기에 그가 살았다는 것이다.

그후부터 북실이는 단연 일등공신으로 강포수의 사랑을 받았음은 말 할 나위도 없다. 이것이 강포수와 북실이 이야기의

대충이다.

나는 그후도 가끔 이 강포수와 북실이를 생각한다.

어째서 북실이는 꿩이나 너구리는 본체 만체 했을까? ... 우리들 凡人들은 사물의 평가를 강포수 마냥 속단하는 것은 아닐까? 꿩 몇마리 잡고 까불던 포인타, 노루를 잡고 의기충천하던 세파트, 풀이 죽은 북실이, 멧돼지를 잡은 후의 변경된 대우.....

나는 스스로 강포수의 위치에 혹은 사냥개들의 각각에게 人間事를 대위시켜 본다.

멧돼지를 잡은 후는 그 느릿느릿하던 북실이 동작이 오히려 무게 있게 보였다. 예나 다름없이 바위같은 표정을 하고 다니던 그 잡종 똥개 북실이의 모습이 지금도 내마음 한구석을 자리잡고 있다.

<國會速記課>

INTERSTENO

이번 7月 INTERSTENO 부랏셀大會 參加申請國은 32個國으로 밝혀졌으며 그중 個人會員資格으로 申請한 國家는 英國을 비롯 8個國, 그리고 傭서버一參加國으로는 日本等 4個國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이웃 日本은 이大會에 日本速記協會 會長을 團長으로 25名의 大團員이 傭서버一로 參加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福>



金 允 洙

世上에는 自己가 단연 大器노라고 自處하는 者들이 많다. 더욱이 그 理由가 결작이다.

每事に 政治性이 濃厚해서 권모술수에 능란해야 하고 約束, 時間, 信義觀念같은 것은 아예 小器 小人들의 것이며 大人들은 오직 큰 것만을 생각하고 굵게 그리고 짧게 살기를 즐겨하는 것이 大器들의 人生觀이요 定義라고 뽑낸다.

그러한 잘못된 大器들의 末路를 보면 「부로커」나 하다 鐵窓身勢가 일수고 事業을 하되 단번에 一獲千金을 노림으로서 失敗가 고작이고 人間社會에서는 信義를 모르니 모든 사람으로 부터 外面當하고 어제의 번

지르르 하던 神士가 오늘엔 피죄죄한 乞人으로 轉落하여도 그래도 입에서는 亦是 호언 장담이고 하나 따위는 아예 생각키도 싫다는 뜻이 오직 백 만을 구하려 든다. 그들은 적은 것에 충실함으로서 큰 것을 얻고 오늘에 충실함으로서 내일에 행복이 온다는 眞理를 모르는 모양이다.

그 그릇된 大器思想의 무리들이 오늘날 우리 社會를 不信의 社會로 或은 混濁한 社會로 물들이고 있는 것은 참으로 寒心한 일이다.

우리 速記人의 社會에 그러한 잘못된

大器思想이 浸透되어서는 안되겠다. 前後組間에 或은 主副務間에 時間을 지켜 주지 않는다거나 政治的으로 或은 適當主義로 同僚를 괴롭히는 일이 있어서는 困難하다 神經性職業일수록 最大의 「에치켓」을 發揮하여 相互 精神的으로 平安한 狀態에서 일할 수 있게 하고 적은 것에 충실함으로서 화기애애한 가운데 큰 것을 얻도록 努力함이 速記人들의 바른 姿勢이다.

要約해서 速記人들에게 네가지의 福이 있다.

첫째는 主務와 副務가 圓滿한 가운데 相互 協助가 될 수 있도록 잘 만났느냐 하는 것이고,

둘째는 前組와 後組를 相互

不安함이 없이 協助가 될 수 있도록 잘 만났느냐 하는 것이고,

셋째는 發言內容을 잘 만나야 하고,

넷째는 擔當統率者를 잘 만나야 한다는 이 네가지 福중에 단 한가지라도 마땅치 못한 것이 있으면 自然 職務에 怠慢해질 수가 있고 非協助的인 反抗心이 생길 수도 있다.

1,2秒를 따지는 것은 小人이라는 그릇된 大器思想을 버리고 적은 것에 충실함으로서 큰 것을 얻는다는 信條를 우리는 가져야겠다.



幸

福

河 良 培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자신있게 나는 진정 행복하다고 생각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거리를 물밀듯이 지나가는 人波중에 자기 삶에 만족하는 이가 얼마인가를 생각하면 生은 매우 비관적이다. 그러나 행복하지 않다고 그것이 곧 불행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행복하지도 불행하지도 않은 상태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제를 인정하고라도 왜 인간은 행복하지 못할까? 그 이유는 한 마디로 인간의 지혜가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聖人の 완전한 지혜라면 인간은 해방을 느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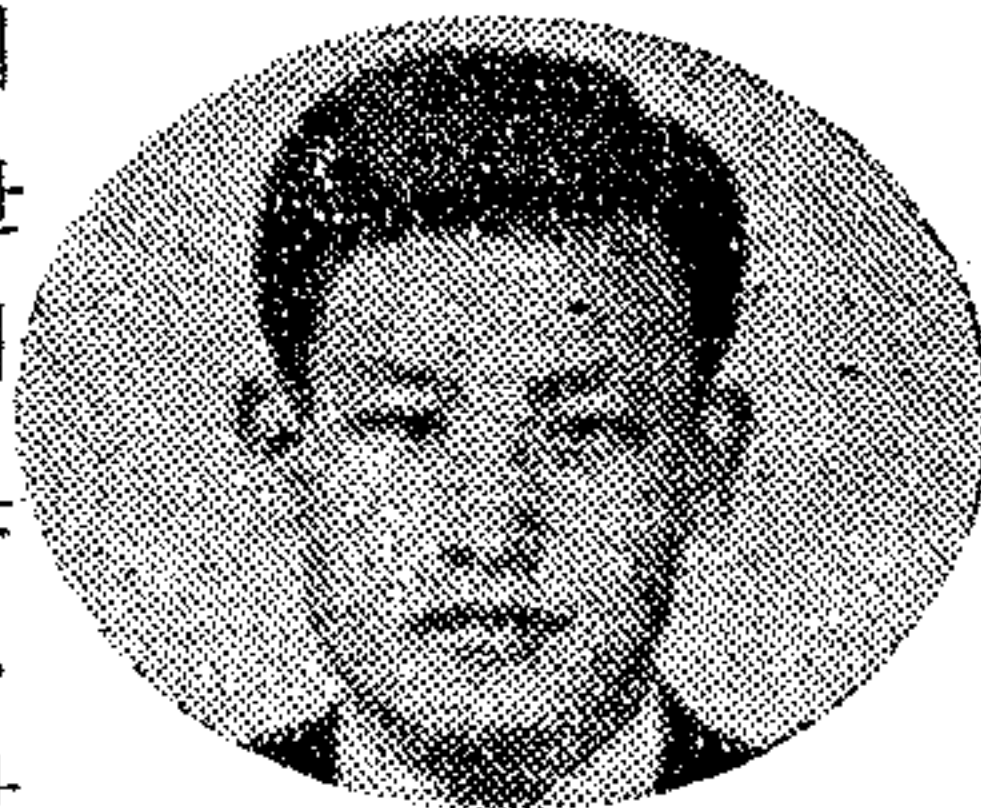
基督教은 原罪思想으로 인간이 땀 흘려 벌어 먹는 것을 설명한다. 어쨌든 神은 인간에게 지혜와 욕망을 함께 주었으며 인간은 삶의 다양성을 위한 욕망(財, 色, 食, 名, 壽)이 충족되기를 갈망한다. 그것도 하루의 충족만으로 부족하며 앞으로도 그러리라는 보장과 확신을 기대한다.

이러한 욕망 충족과정에서 빚어지는 고통이 개, 돼지에게는 없다. 그들은 당장 배부르면 좋아한다. 어떤 위험과 불안에도

떨지 않으며 죄의식을 느끼지도 않는다. 행복한 돼지보다는 불행한 소크라테스가 되라는 말이 있지만 인간에게 고난은 필연적인 것이라 할만하다.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자면 이러한 욕망이 필수 불가결하다는데 異論은 없다. 다만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 욕망을 충족시켜야 한다면 과연 최소한 얼마만큼 추구해야 할 것인가 생각할만 하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은 무지개를 잡으려는 식의 막연한 욕망속에 살고 있다. 먹고 살 걱정과는 다른 좀더 나은 수입 위치를 찾아 방황하고 질병으로 애정 문제로 갈등을 느낀다.



이러한 불행의 요소를 들여다 보면, 대부분 어처구니가 없다. 인간 스스로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지혜에다가 가치를 부여했고 제도를 만들어 일정가치를 주입시키며, 그것을 획득하고자 애쓴다.

사람들은 주관적인 행복보다는 이러한 객관적인 행복 즉 남에게 보이기 위한 행복을 추구한다. 아름다운 꽃, 시냇물 소리, 달 밝은 밤, 수확의 풍성함, 마음의 호젓함을 외면하고 석유난로 냉장고 TV에 신경을 쓴다.

新羅에 「元曉大師」는 「義湘大師」와 같이 唐나라로 法을 구하러 가던중 묘지에서 밤을 새우는데 목이 몹시 말라 물을 찾아 마셨다. 그 이튿날 새벽에 다시 보니 어제 밤 그렇게 맛있게 마신 물이 해골에 담겨 있었던 것을 알고 놀래어 토해 내려던 중 크게 깨친바 있었다.

그것은 일체만법이 오직 이 한 마음에 있다 (一切唯心遺)는 것으로 원효대사는 구법의 길을 멈추고 홀로 귀국해 大乘佛敎의 기초를 닦았다.

이것은 얼마나 인간의 마음이 간사한가를 설명한다. 스스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觀點에 따라서는 행복을 느낄수도 있는 것이다.

佛敎의 근본은 헛된 집착을 끊으므로 苦의 원인을 제거하는데 있다. 이것이 苦의 근본적인 해결책인지 모른다. 누구나 죽음의 계단을 한걸음씩 오르며, 더구나 空手來 空手去의 철칙을 생각한다면 행복 불행 사랑 미움 승리 패배 모두가 헛되다고 생각될 것이다.

그러면 인생에 모든 집착 욕망을 포기 함으로서 과연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

을까? 물론 감정의 일시적 욕망을 가차없이 배어 버리는 것이 행복의 길이지만 적어도 하나쯤은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행복의 씨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

그것은 새싹이 굳은 땅을 헤치고 나오듯이, 애국자가 조국을 위해 희생하는데 희열을 느끼듯이, 그리고 예술가가 생활고에 시달리며 창작세계에 몰두하듯이 대상은 각각 다르나 자기 하고싶은 일을 능력껏 하는데 만족이 온다.

자기의 이상을 달성하면 더 큰 만족이 없겠지만 설사 달성치 못했다 한들 그것이 가장 가치있는 일이라고 느낀것을 했기에 후회는 안할 것이다.

인간의 행복 그것은 모든 先人이 생각했다. 예수 석가가 생각했고 많은 철학자가 그러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아직도 불행으로부터의 해방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것은 聖人들의 가르침이 부족했다기 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이해가 적었지 않나 생각된다.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일까 그것은 東西古今을 막론한 영원한 인류의 숙제이다. <軍入隊・前國會速記士>

< 改 名 >

國會速記士인 朴光澤會員이 最近 생각한 바 있어 高名한 姓名哲學家의 姓名診斷을 받은 結果 아래와 같이 改名하였다고 합니다.

新作名 朴 相 燦 (박 상 욱)

(詩)

無 題

柳 智 永

머리를 숙여라!
 어둠에 피는 可憐한 한 떨기 꽃이요
 죽임의 行次요
 너희들에게도 이제는 헌누더기 너털이 借
 衣와 가없이
 더럽힌 肉體와 社會의 罪와를.....
 뿌리쳐 던지고
 어둠과 지저분과 悲慘에서
 깨끗이

崇高하게
 빠져나가게 될 그날이 오게 될게다

× ×

나는 死刑囚를 생각 하노라!
 한 발 한 발 刑場에 가까이 가며
 一分을 永劫이라고도 느끼며
 한 時間의 行程을 一瞬이라고나 생각하는
 死刑囚의 일을.....

아 可憐한 人間이요!
 우리들의 一生은
 그러한 刑場으로 가는 行程이 아니겠는가?

더군다나
 우리들은 한 떨기 꽃에
 시름 없이 넋을 잃고
 歡聲을 울리며
 꽃에 방울짓는 이슬의 구슬속에
 하늘과 땅을 보는것이 아닐까?.....

축수를 들일 人間의 마음이요

× ×

두꺼운 비구름이

하늘 앞이 뭉게 뭉게 떠돈다
 하늘과 땅도 잿빛 一場
 마음속도 바깥도 잿빛 一場
 나무 그루의 가지 가지가
 겨울의 주름진 形態를 우술히 뻗치고 있다
 한마리의 산새가
 行列의 앞장을 서서
 가지에서 가지로
 옮겨대고 있다

× ×



棺위개

던져떨어지는 흙덩이의 音響이

漸漸 알아진다

하나 하나의 소리가

可憐한 마음을
 속속들이 들리게 하고
 눈은 一心不亂히
 덜힌 흙사이로 겨우 보인다
 검은 흙의
 最後의 반짝임을
 놓치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그것은 形跡도 없이 자취를 감추고
 던져 들어간 흙이
 흙덩이 위에 덮치고
 구녕은 漸漸 묻히고
 또다시
 새로운 산등성 위에
 박을 얹는다

<協會總務部長>

가슴으로 防禦한 鬪志

= 第1回 體育大會點景 =

楊 澈 在

화창한 날씨, 貞陵 어느 언덕 배기서 “계속 눌러랏! 야, 어림없다!” 咆哮하는 소리가 산마루를 가득 메운다.

바로 이 場面이 우리 協會가 주선한 排球大會 光景이다. 물론 우리 會員들끼리의 조출한 운동경기이지만 사실로 말하면 協會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國會速記課 各係間의 對抗戰이다. 그리고 또한 이 試合은 會員相互間의 親善과 體位向上을 위하여 計劃된 것이라고 들린다.

序談은 이만 줄이고 競技進行 중에 일어났던 寸劇들을 모아본다.

排 球 大 會

○ “오! My ball!” 大喝一聲을 터뜨린 제3조의 崔松燮선수. 그의 손놀림보다 재빠른 빨이 그의 가냘픈 가슴을 들이받고 蒼天에 뿔었다. 그의 두손은 虛空에서 허우적 거리는데 이미 가슴을 치고나온 빨은 살아났다. 끝내 反則호각은 붙어지지 않았다. 다만 주위에서 폭소가 연발했을 뿐...

○ 제4조팀. 上下 흰 유니폼을 유일하게 (다른 팀은 上衣유니폼만 입었다) 걸치고 백 넘버와 가슴에 4조휘장까지 달고 나온 이 팀을 그야말로 <模範>을 심히 즐기는 선수組였다. 코트 交代시에는 선수들 共

히 바른쪽으로 돌아 질서정연 케인지 코트하는가 하면 경기初엔 선수들이 모여 짹 짹박수치며 “화이팅!”— 프로 선수 매너를 유감없이 발휘한 이 팀은 승부에도 강하여 2等賞 획득.

○ 제5조팀은 李德九, 金敬萬선수의 맹활약으로 제6조(申世華조장을 위시, 長身 선수에다 排球좀 했다는 젊은 會員들로 꼭 차 이 팀은 애초부터 발군의 실력이었다)와의 對戰에서 제1셋트를 빼앗는 등 분투했으나 잇따른 不運이 겹쳐 憤敗하고曰 “나이 좀 들었더니 몸이 말을 안 듣는 걸...”

○ 진정 老將선수들만의 제1조팀— 게임에 임하기 앞서 불고기로 스태미너를 길렀다는 이 팀은 투지와 패기로 뭉쳐져 있었지만 제4조 上下 흰 유니폼팀에 말려 惜敗. 老益壯曰 “거 對陣運이 나빴단 말야”—

○ 이번에 參加한 각조의 팀·칼라를 좀 말해야겠다. 每팀 각 係長과 女會員1名은 필히 선수가 되도록 정했기때문에 몇 女子선수만 除하고 대개 구멍난 자린 女會員이 선 포지션이었고 또 몇몇 계장만 (이분들은 선수 이상이어서 곤란할 정도) 제하고는 좀 불안한 자리가 계장들포지션

이었다—

卓球大會

○ 탁구寸景은 더욱 佳境을 이루었다. 複式게임에서는 球을 서로 바꾸며 交代로 받아 넘기다 같은 조의 선수끼리 자칫 잘못 몸을 부딪쳐 交通事故를 일으키기 일수.

그러나 제2조 男女혼성복식팀의 잦은 교통사고 그 男선수의 故意인지 偶然인지 아리송...

○ 간밤에 세도록 마셨다는 高太仲선수 苦戰苦戰 끝에 개인전 우승.

코끝에 안경을 걸고 둔탁한 몸매를 지독한 持久力으로 카바한 그는 꽤 賞福이 많아 바둑대회에도 제2위를 찾아 했다. — 본인 말로는 조상의 묘자리 덕분으로 서서히 발복을 하기 시작했나?

끝으로

○ 施賞은 전부 貞陵마루에서 행해졌다. 賞 아니 받은 회원은 全無...

그러나 讀者는 誤解없기 바란다. 결코 나누어 먹기 式 시상은 아니었으니까, 열심히 力鬪 苦鬪하여 얻은 名譽로운賞이었다. 다만 競技種目이 많아서 施賞數가 늘었을 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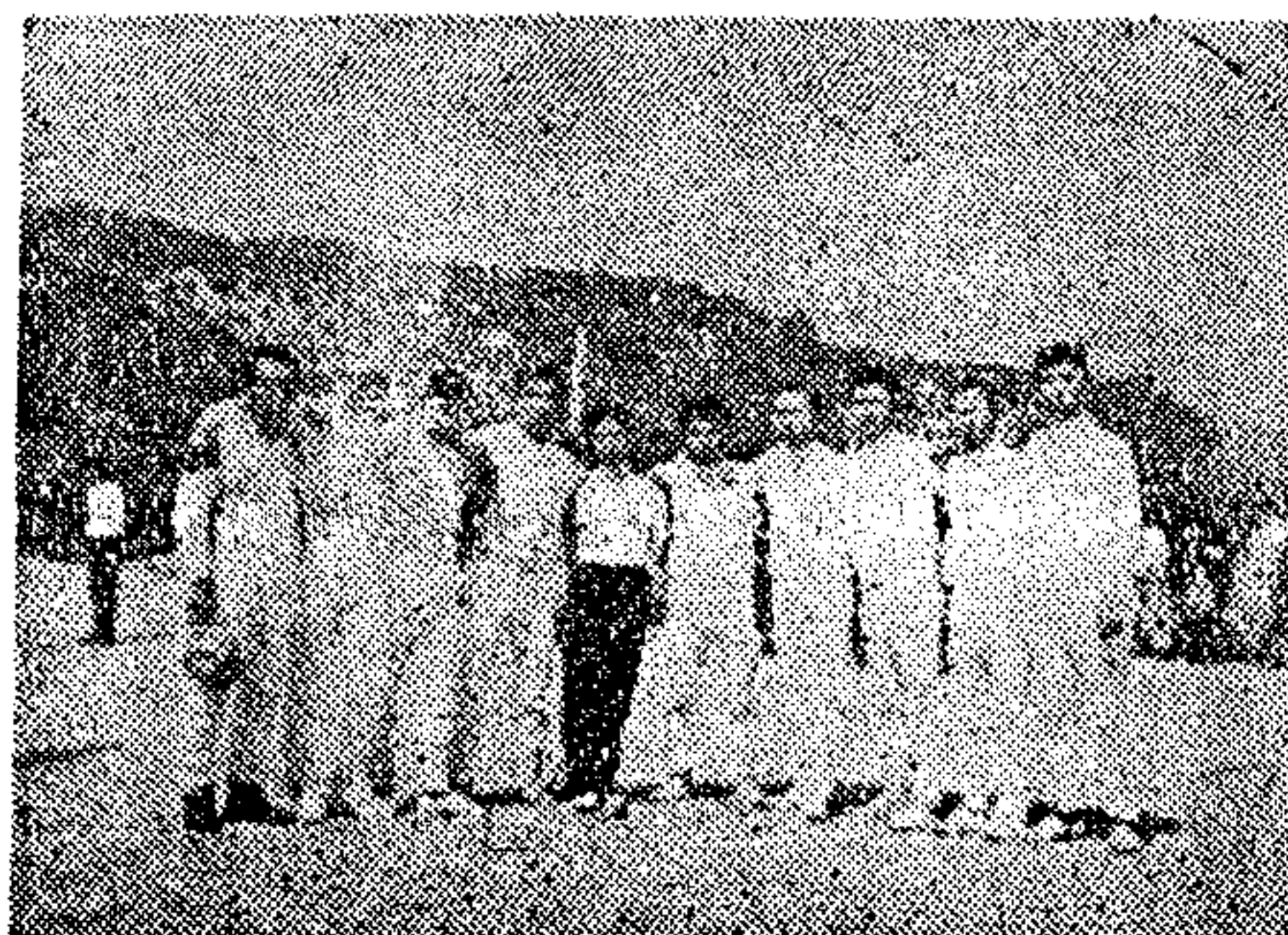
○ 햇갈이 아직 세뻐는 남았을 무렵 各組는 슬금 슬금 흩어지더니 웬걸 그날 저녁 남은 藥酒술통으로 飽飲飽食 흥겨운 바람에 통행금지 앓질하게 歸家했다는 ○組, 1차 2차 3차를 하는 동안에 드릴과 씨스펜스를 겪었다는 ○組...

각양 각색의 逸談으로 웃음 꽃을 피운 것은 그 이튿날 출근한 아침이었다.

× × ×

연습하느라 그을린 저 얼굴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敢鬪하는 게임 모습은 우리 協會의 발전을 기약하는 것 같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뛰고 신나게 서로 웃고 유쾌히 自然을 호흡했던 우리 會員들에게 明年에도 이 大會가 이어지이다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읊고. 이왕이면 來年엔 蹴球도.....하는 여러 會員들의 욕심스런 요청을 귀담아 듣자니 문득 본대회의 성과는 130% 초과달성이었다.

한편 본대회 뒷바라지에 任員外에 李潤和회원이 몹시 수고했다는 사실을 사업부장의 귀뜸으로 알았을때 이 대회를 재미있게 꾸미느라 애쓰신 여러분께 울컥 고마움이 치민다. — 비단 이 사람만의 感想일까,



體育大會 戰績

排 球

- 優勝：6組 (申世華 徐秉運 朴保和 權昌茂 金基英 崔 滉 盧熙南
徐皓正 李永烈 崔福任)
- 2 等：4組 (崔錫模 河大煥 金善弼 鄭應采 宋鍾學 玄柄高 楊澈在
李潤和 金鍾壽 鄭桂泳)
- 3 等：5組 (孫弘基 金源柱 徐吉泉 任哲淳 李德九 金秀旻 金敬萬
黃寅河 梁和子)
- 4 等：1組 2組 3組

卓 球

- 復 式 優勝：6組 (徐皓正·崔 滉)
2 等：1組 (高太仲·鄭明吉)
3 等：4組 (金鍾壽·楊澈在)
- 個 人 優勝：高 太 仲
2 等：徐 皓 正
3 等：崔 滉

合 格 者 (國會速記士採用試驗)

지난 4月 15日 實施된 國會速記士 公開競爭採用試驗에 있어 다음 7名이 榮譽의 좁은 門을 뚫고 合格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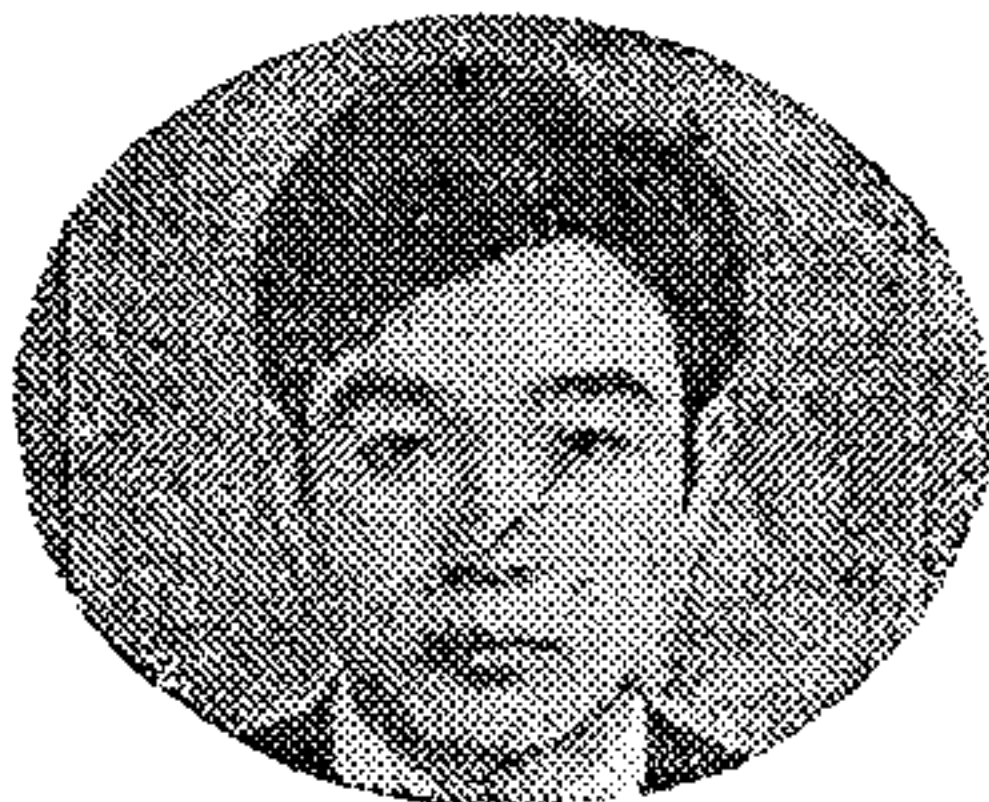
總36名의 에리뜨들이 應試, 分當 320字란 불뽐는 高速競爭을 벌였는데 創出된지 日淺한 議會法式의 進出이 顯著하게 눈에 띠고 있다.

演說體 (320字速) 論說體(280字速)의 速記實技와 學科·面接을 通過한 이들은 今年에 도 女子가 4名 男子가 3名으로 단연 女子가 優勢하였으며 首席合格者(安喜榮孃)는 勿論 4等까지 女子가 차지하고 있어 注目을 끌고 있다.

合格者名單은 다음과 같다. (4月 19日字)

安 喜 榮	(女·議會法式)
任 明 心	(女·議會法式)
金 仙 玉	(女·議會法式)
車 公 順	(女·議會法式)
李 世 喆	(男·議會法式)
全 在 坤	(男·東邦法式)
韓 相 九	(男·議會法式)

◎創 作◎



成 長

(第 1 回)

金 致 元

<아라비안 나이트>의 變奏

「오늘밤도 이야기를 계속하라!」

왕은 감은 눈을 치켜뜨고 턱을 내밀면서 그녀에게 명했다.

그녀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 폭군이 귀를 기울일 수 있게 얘기해야 한다. 실수 없이 이끌어 나가야 내일 아침 그녀의 목숨이 부지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몇천명에 이를지 모를 처녀들의 희생을 막을 수 있다. 언제 임금은 그 잔인한 습관에서 돌아설 것인가. 「오 현세의 임금님!」그녀는 생명을 걸고 이야기를 한다.

서울의 어느 번두리에 한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살고있는 서울—도심지에는 고층건물이 늘어가고 번두리 곳곳에는 도로와 신혼주택들이 자꾸 뻗어가는 서울에서 그는 전차를 타고 직장이랍시고 다녔습니다. 종점에서 내려 반시간이나 걸어야 하는 집까지 말입니다. 버스를 타면 훨씬 편리하지만 교통비를 절약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돈을 아낄 줄 알았습니다. 그는 영리하고 깔끔하고 정직했습니다. 그리고 순결하고 정의감이 강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이 순결하다거나 정의롭다고는

자처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생활이 자신의 약점과 추행과 파오를 되씹는 나날이었던 것입니다.

이 젊은이의 첫째의 약점은 가난이었습니다. 둘째약점은 비굴과 자학이었습니다. 가끔 가다가 오나니를 한대서가 아니라 그는 세상을 비웃기혜 앞서서 자기를 비웃기부터 했습니다.

중학교때는 선생이 사라는 부교재가 없어서 그 시간이 되면 교실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지내야 했습니다. 선생은 시간마다 책검사를 해서 없는 사람은 앞에다 무릎을 꿇려놓고 수업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소년은 무릎을 꿇어야 했는데 그것은 필요이상의 부교재를 강요하는 선생에대한 저항이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소년이 책을 가져오지 않자 선생은 참대자로 후려치기를 몇번이나 하고서 팔에 기운이 빠지자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질렸고 소년은 훌쩍훌쩍 울었습니다. 이 소리가 또 선생에게 거슬려 더욱 사정 없게 후려갈겼습니다. 참대자가 짝 갈라져 나갔습니다. 수업은 망쳐지고 선생은 소년을 교무실로 끌고 가서 반성문을 쓰라고 했습니다. 사태를 짐작하는 댄 선생이 어린 그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는

반성문을 썼습니다. 「선생님을 괴롭혀 드렸읍니다…」이 따위 글을 쓰지 않았어야 소년은 떳떳했던 것입니다. 그 선생을 볼 적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겉으로는 반성문만큼이나 공손히 허리굽혀 인사했던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예는 얼마든지 들 수 있겠습니다. 소년은 선생을 경멸하면서도 반면에 철저한 패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찌서 그 이상 저항하질 못하고 자학적인 반성문을 썼던가 결코 선생이 무서워서는 아니었는데, 그 시간이 다시 돌아왔을 때도 소년은 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또 맘대로 해보라는 뱃장으로였습니다. 그런데 선생이 교실에 들어오기 전에 뒤로부터 소년에게 책하나가 던져졌습니다. <훈>의 짓 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누구나가 막찬가지겠지만 자기 직장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희망을 걸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이 세상을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를 따져 보아서 살 가치가 있으면 살아주고 없으면 안 살기로 오래전에 계획했었는데 좀처럼 결론을 내리지 못해서 살아있다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살문제를 놓고 연구하던 그는 같은 문제점을 안고 살아가는 여자를 만나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자기와 마음과 뜻이 맞을 뿐만 아니라 자기보다 더 과격하달까 결단력있는 이 여자에게 쫓 빠지게까지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전차속에서 처음 그 여자를 보았을 때 누군지 얼른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몇년 전에 한 동네에서 살던

여자인데 그때는 소녀였고 지금은 숙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부모들은 이웃으로 지나기도 했지만 그들끼리는 얼굴만 알았지 말을 해 본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차츰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가 <숙>이라고 했던가? 언젠가 한번 수면제를 먹고 자살하려던 적이 있었지 바로 그 애로구나 지금은 저렇게 요염해졌을까! 원래 계집애가 이빠서 놈쟁이들이 따라다녔던 여자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실업자이고 말하자면 좀 모자라는 편이었습니다. <숙>이가 밤늦게까지 일을 하다 돌아오면 한길에 까지 나가서 기다리곤 했습니다. 불량배들이 그녀를 따라오기도 하고 골목에 지켜섰다가 나타나기도 해서 무섭다고 그녀의 어머니가 그의 집에 와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음날도 전차에서 얼굴이 마주쳤습니다. 그때는 무언가를 의식했는지 그녀도 얼굴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세째날에 이들은 또 같은 전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이 우연을 이상하게 여기고 <숙>이라는 그 여자에게 말을 하고 싶은 충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말할까 망설이다가 그 여자가 차에서 내리자 따라 내렸습니다. 사실은 그가 내릴 곳도 거기였고 그곳이 종점이었습니다. 그는 여자의 뒤를 따라가서, 「이봐!」하고 불렀습니다. 이어서 「숙이가 아니니? 모래내에 살던…」이라고 말하려고 하기도 전에 여자는 뒤를 돌아보더니 짐짓 놀라는듯 아는체 하는 것이었습니다.

「난 숙이를 어제도 보고 그저께도 보았

어!

「나두...」

「그래? 나만 본 줄 알았지...그런데 왜 모른 척 했지?」

「아이 어떻게 아는체를 해」

「부모님들 잘있고?」

「어머닌 돌아가셨어!」

「아!...난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들은 서로의 말과 표정에서 지난날의 고난과 오뇌가 상통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내일 ○○에서 만나자!」

그들은 헤어졌습니다. 그들은 툭 까놓고 이야기를 주고 받는 사이에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숙>이는 죽음을 몇번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꾸겨진 여정, 때묻은 삶, 우울과 초라함만 남았지만 모질게 살아남은 것은 너를 만나러 함이었나봐」

「나도 그래 한번밖에 없는 자살을 아껴왔더니 이런 보람이 있어!」

「이제 너를 두고는 죽기 싫어!」

그들은 하루라도 보지않으면 견디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틈나는대로 만났고 직장을 무시하면서 호젓한 장소를 찾아 단꿈을 꾸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부부가 되어 있었고 동서

할 방을 찾아 다녔습니다. 둘이서 힘을 합쳐도 방 하나를 구하기에 힘이 들었습니다. 남자에게는 어머니가 있었고 여자에게는 부양해야할 아버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편이나 어른들은 자기 자녀를 간섭할 만한 자리에서 밀려나 있었던 것이 그들에게 다행이라고나 할른지 가족과 친구들과 사회에 대해서 내놓고 말할수 없는 그들의 관계이지만 그것이 자기들의 눈에는 더 없이 귀중하고 올바르게만 비쳤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 야합한 부부가 자기들 본래에 지녔던 죽음의 그림자를 지고다닐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읍니다.

얼마 후에 이들의 자살사건은 친구들에게 충격을 주고야 말았읍니다 부부는 같이 약을 먹고 죽으려고 한게 틀림없었지만 이번에도 여자는 전애와 같이 미수로 끝나 다시 살아남았고 남자만이 아껴두었다던 한번만의 자살이 되고 말았읍니다. 이 일은 그의 중학교적부터 친구인 <훈>이 군에 가 있을 동안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훈>이 마지막 받은 편지에 이런 귀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토끼들은 자기들의 연약함을 비관한 나머지 집단 자살을 기도하였다...」

<계속>



社 團 大 韓 速 記 協 會 定 款

1969. 4. 14 制定

1970. 12. 30 改正

第 1 章 總 則

第 1 條 (名稱) 이 法人은 社團法人 大韓速記協會(以下“本協會”라 한다)라 稱한다.

第 2 條 (所在地) 本協會의 本部는 서울 特別市에 두고 必要한 곳에 支部를 둘 수 있다.(70. 12. 30改正)

第 3 條 (目的) 本協會는 速記人의 總集結體로서 速記文化의 研究發展 및 普及과 速記人의 資質向上, 相互協力, 親睦을 圖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4 條 (事業) 前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다음 各號의 事業을 行한다.

1. 速記文化 研究에 關한 事項
2. 速記文化 普及에 關한 事項
3. 社會各界의 速記分野에 關한 事項
4. 速記文化의 宣傳, 出版에 關한 事項
5. 速記技能 檢定에 關한 事項
6. 外國速記文化와의 交流에 關한 事項
7. 言論報道分野에 있어서의 速記에 關한 事項

第 2 章 會 員

第 5 條 (會員資格) 本協會의 會員은 다음 各號에 該當한 者로 한다.

1. (名譽會員) 本協會의 目的과 事業을

理解하고 物心兩面으로 後援하는 人士로 理事會의 決議로서 名譽會員에 推戴된 者.

2. (正會員) 本協會의 會規에 依한 資格審查에 合格된 者(資格審查에 關한 事項은 會規로서 定한다)

3. (準會員) 本協會에 加入된 速記法式을 習得한 者나 習得中에 있는 者中 理事會의 決議로서 準會員의 資格을 認定받은 者.

第 6 條 (會員의 權利) 會員은 總會를 通하여 本協會의 運營에 參與할 權利를 가진다.

第 7 條 (會員의 義務) 會員은 다음 各號의 義務를 가진다.

1. (名譽會員) 本協會 運營의 諮問에 應할 수 있다.
2. (正會員) 議決權, 選舉權, 被選舉權 其他 會員으로서 모든 權利를 平等하게 行使하며 定款또는 總會의 決議事項 遵守와 會費를 納付할 義務를 진다.
3. (準會員) 總會에서 意思表示만을 할 수 있다.

第 8 條 (會員의 脫退) 會員이 本協會에서 脫退하고자 할때에는 理事長에게 脫退書를 提出한다.

第 9 條 (懲戒) (1) 會員에 다음 各號에 該當하는 事由가 發生한 때에는 理事長

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會員을 懲戒할 수 있다.

1. 第7條의 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한 때
2. 本協會의 事業을 妨害할 때
3. 本協會의 名譽를 毀損하거나 害를 끼친 때

(2) 前項의 懲戒의 種類는 다음과 같다

1. 除名
2. 譴責
3. 資格停止

第 3 章 任 員

第10條 本協會에 다음의 任員을 둔다.

1. 會 長 1人
2. 副會長 2人
3. 理事長 1人
4. 理 事 12人(以內)
5. 監 事 2人

第11條 (選出) (1) 任員은 總會에서 選出한다.

(2) 前項의 任員은 文化公報部長官의 承認을 받아 就任 한다.

第12條 (任期) 任員의 任期는 共히 2年으로 한다.

다만 補選된 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餘期間으로 한다.

第13條 (任員의 職務)

1. (會長) 會長은 本協會를 代表하고, 本協會의 業務를 統理한다.
2. (副會長)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한다
3. (理事長) 理事長은 理事會를 代表하며 本協會의 事務를 統轄한다.

第14條 (職務代行) 會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副會長이, 理事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總務理事가 그 職務를 代行

한다.

第15條 (理事) 理事會를 통하여 本協會의 業務에 관한 事項을 審議 決議하며 總會 또는 會長으로 부터 委任된 事項을 處理한다.

第16條 (監事) 監事는 다음 各號의 職務를 行한다.

1. 本協會의 財産事項 監查
2. 理事會의 運營과 그 業務에 관한 事項의 監查
3. 前2號의 監查結果를 總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第 4 章 總 會

第17條 (構成) 總會는 本協會의 最高決議機關이며, 正會員과 準會員으로 構成한다.

第18條 (召集) (1) 總會는 定期 總會와 臨時總會로 한다.

(2) 定期總會는 年1回 12月中에 會長이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3) 臨時總會는 正會員의 3分の 1以上の 要求가 있을 때 또는 理事會의 決議로서 會長이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第19條 (附議事項) 總會에 附議하는 事項은 다음과 같다.

1. 事業計劃에 관한 事項
2. 豫算 및 決算에 관한 事項
3. 定款變更에 관한 事項
4. 任員選出에 관한 事項
5. 其他 委任事項

第20條 (定足數) (1) 總會는 在籍 構成員過半數의 出席으로 開議하고 出席會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決議한다.

(2) 前項의 議決權은 總會에 出席하는

다른 會員에게 委任할 수 있다. 이경우에는 委任狀을 書面으로 作成 會議前에 提出하여야 한다.

第 5 章 理 事 會

第21條 (構成) 理事會는 本協會의 執行機關으로서 總會에서 選出된 理事로 構成한다.

第22條 (召集) 理事會는 理事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한때나 在籍理事 4 人 以上の 要求가 있을때에 理事長이 召集하고 그의 長이 된다. 다만 總會後 最初의 理事會는 會長이 召集한다.

第23條 (附議事項) 理事會에 附議할 事項은 다음과 같다.

1. 總會에서 議決된 事項의 執行에 관한 事項
2. 總會에 附議할 案件의 豫備審議에 관한 事項
3. 豫算決算書作成에 관한 事項
4. 事業計劃運營에 관한 事項
5. 定款改正案의 提出에 관한 事項
6. 會員加入의 決定에 관한 事項
7. 會員 懲戒에 관한 事項
8. 其他 重要事項

第24條 (定足數) 理事會는 在籍構成員의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議하고 出席한 者의 過半數의 贊成으로 決議한다. 다만 可否同數인 때에는 議長이 決定한다.

第 6 章 執 行 部 署

第25條 (部署) 理事會에 다음의 部署를 두고 “部” “會”에 部長 委員長 各1人을

둔다(70. 12. 30. 改正)

1. 總務部
2. 財政部
3. 宣傳部
4. 事業部
5. 外國語部
6. 研究委員會
7. 資格審查委員會

第26條 (各部署의 業務分擔) 各部署의 業務分擔은 會規로서 定한다.

第27條 (各部長 및 委員長의 選出方法) 各部長 및 委員長은 理事會에서 在籍理事 3分之2 以上の 贊成으로 選出한다.

第 7 章 財 政

第28條 (財政) (1) 本協會의 財産은 이를 基本財産과 普通財産으로 한다.

(2) 基本財産은 年1回 그 目錄을 作成하여 文化公報部長官에게 報告한다.

(3) 基本財産은 賃貸 處分 其他 私權을 設定하거나 하는 事項에 대하여는 미리 文化公報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29條 (歲入等) 本協會는 다음의 歲入으로 그 歲出에 充當한다.

1. 會 費
2. 補助金
3. 贊助金
4. 其他收入

第30條 (會計監査) 監事는 本協會의 會計에 관한 事項을 年2回 以上 監査를 하여야 한다.

第31條 (會計年度) 本協會의 會計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準한다

第 8 章 事 務 局

第32條 (設置) 理事長의 指示를 받아本協會의 業務를 處理하게 하기 위하여 事務局을 둔다.

第33條 (職員) 事務局에 局長1人과 職員 若干人을 둘 수 있다.

第34條 (事務局長등) (1) 事務局長은 理事會의 同意와 文化公報部長官의 承認을 받아 理事長이 任命한다.

(2) 事務局長은 理事長의 指示를 받아 本協會의 任務를 處理한다.

(3) 事務局職員은 理事長이 任命한다.

(4) 事務局職員은 事務局長의 指示를 받아 事務局의 業務를 處理한다.

의 署名捺印을 얻어 總會에 提出할수있다.

(2) 定款改正은 總會에서 出席會員 3分の 2 以上の 贊成으로 決定하여 文化公報部長官의 許可를 얻어야 한다.

第38條 (規則) 다음 各 號의 事項에 對하여는 理事會의 決議를 거쳐 本協會의 規則으로 定한다.

1. 支部의 組織과 運營에 관한 事項
2. 事務局의 組織과 運營에 관한 事項
3. 會議召集運營에 관한 事項

附 則

第 9 章 補 則

第35條 (解散) 本協會를 解散하고자 할 때에는 總會에서 在籍會員 3分の 2 以上の 贊成으로 議決하고, 文化公報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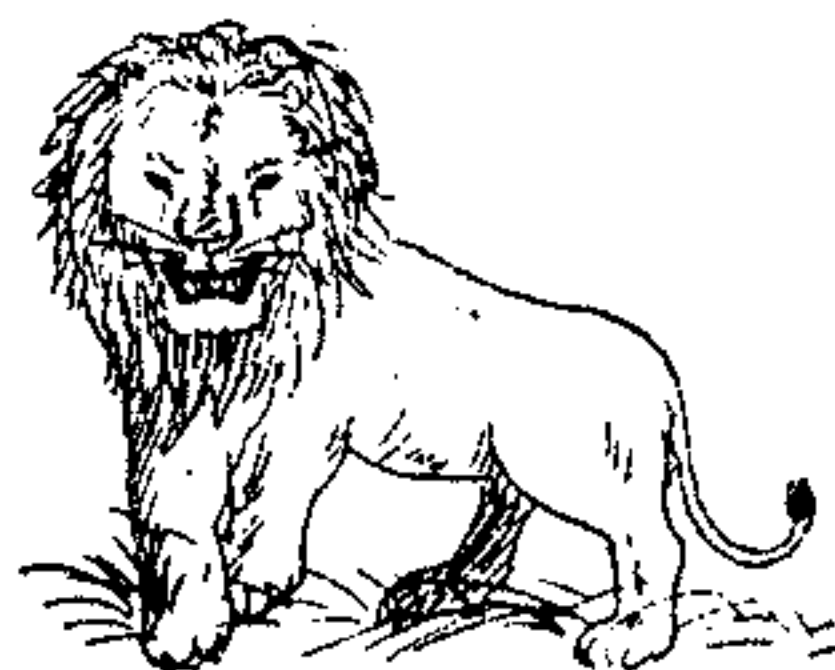
第36條 (殘餘財産) 本協會가 解散할 때에는 그 殘餘 財産은 文化公報部長官의 承認을 받아 國家 또는 本協會와 類似한 法人이나 團體에 寄贈한다.

第37條 (定款變更) (1) 本協會의 定款改正은 理事會決議나 正會員 20名 以上

(1) 本協會는 大韓速記協會 解散과 더불어 一切의 그 業務를 引受한다.

(2) (經過措置) 1. 이 定款은 社團法人 大韓速記協會 創立總會의 議決을 거쳐 社團法人의 許可를 얻음으로서 그 効力이 發生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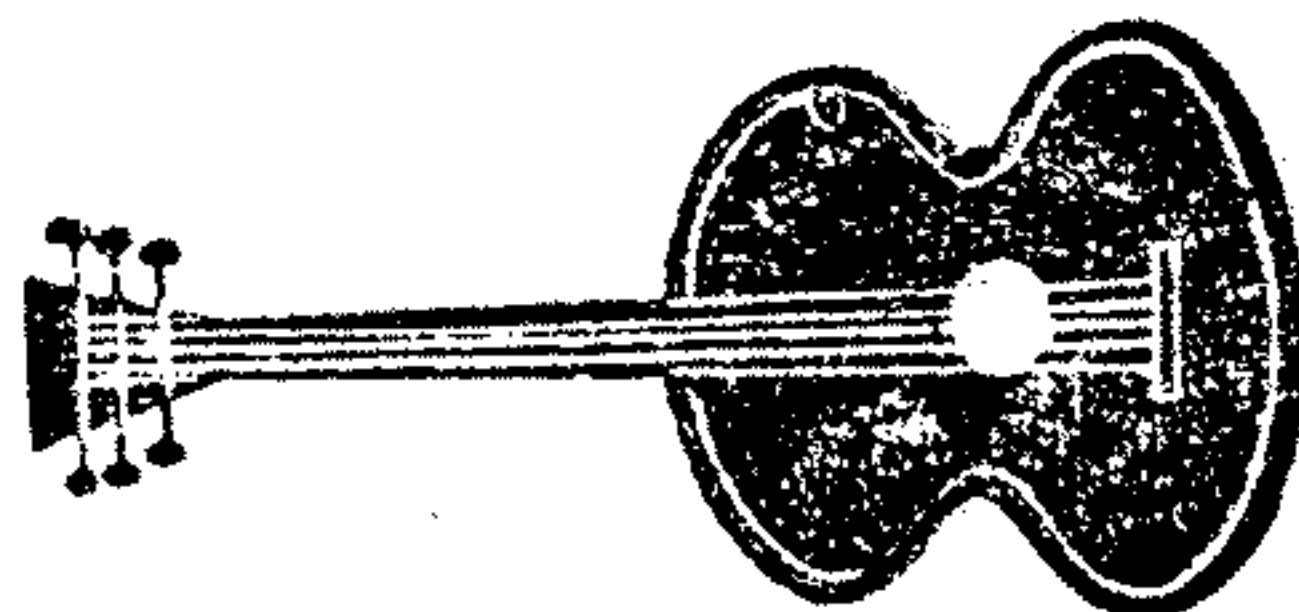
2. 創立 總會에서 報告接受된 者는 本協會의 最初の 正會員이 된다.



會 務 日 誌

71. 3. 31 會誌〈速記界〉第5號 發刊 配付
4. 2 第18次 理事會(於 國會速記士養成所)
4. 14 第19次 理事會(" ")
- HLKX 極東放送出演 〈現代人斗 速記〉
4. 17 第1回 體育大會 (於 新興寺斗)
- 種目：排球・卓球
4. 28 英語速記人事狀發付 (外國語部)
5. 3 HLKY 基督教放送出演 (1週間)
- 〈女性斗 速記〉
5. 8 第20次 理事會
5. 17 部長會議
5. 26 1/4分期 事業實績報告 (文化公報部)
- 2/4分期 事業計劃書提出 및 國庫補助金申請 (文化公報部)
6. 8 2/4分期 國庫補助金受領 235,500원

〈總務部〉



編輯後記

- 겨우 40「페이지」의 작은 책. 그것도 1년에 네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이것을 편집하느라고 기획하고 원고청탁을 하고 독촉을 하고 인쇄소를 드나들고 하다보면 결코 수월한 일이 아님을 절감하게 된다. 좀더 누군가가 협조해주었으면, 일손이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에 젖는다. 이 會誌도 회원 여러분의 참여가 골고루 이루어져야만 알찬 것이 되리라 믿는다. (仙)
- 「체육대회」「바둑대회」 등으로 이번 봄철은 속기계가 그 어느 때보다 젊어진 듯 하였다. 그 때의 돈독한 친목과 화기에애함이 보다 밝은 앞날을 열어주는 활력이리라. 徐正南先生과 鄭尙美先生 두분께서 특별히 원고를 써 주어 이번號를 알차게 해준點 감사드린다.
- 政街의 표정과 議會의 動向은 속기인들과 密接한 관계가 있다. 두 차례의 선거를 치르고 앞으로 제 8회 國회가 문을 연다. 우리도 차분한 마음으로 새로운 議政史의 기록에 참여 해야겠다. (致)

季刊 速記界

<第 6 號>

1971年 6月 20日 發行

<非賣品>

發行人 崔 致 煥

編輯人 梁 源 龍

社團 法人 大韓速記協會

서울特別市 中區 太平路 1街 60-1

(75) 6987 · 6940

會 展 祝 發 國
會 市 祝 會 國

武珪 求培 一鎔 達鉉 相龍 澤洪

相龍 鼎用 東宇 星琮 旭得 汝昌

李劉 姜高 李鄭 姜趙 張方 尹姜

長長 長長 務政 查事

會副 會副 總財 審監 運營委員

“ “ “ “

外 會員一同